

손안의 인천

이제, 모바일에서 인터넷방송 Mint-TV, 인터넷신문 I-View
월간지 <굿모닝인천>을 보세요.

인천광역시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인천시미디어'를 서비스합니다.



'인천시미디어'를 보려면

하나. 앱 스토어를 통해 무료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둘. QR코드를 스캔

셋. smart.incheon.go.kr로 접속



굿모닝 인천

Good Morning INCHEON

2011 / 6

Special 그곳은 온통 초록빛... 숲으로 가다

공간 UNESCO A.poRT

Zoom In 인천만 조력발전소 논쟁

Old But New 산곡동



발행처	인천광역시
발행일	2011년 6월 1일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편집인	대변인 윤관석
편집장	유동현(뉴미디어팀장) twitter.com/ihappyou
취재	편집위원 이용남 twitter.com/yona1488 편집위원 정경숙 twitter.com/bluelou7 편집위원 김윤경 twitter.com/ice3333
사진	김보성 · 홍승훈 · 김성환(자유사진가) 심영보 · 하장원(시 대변인실)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편집디자인	코인뱅크 T. 032-831-2336
인쇄	브레인포스 T. 032-423-1988

굿모닝인천은 goodmorning.incheon.g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포됩니다.

구독문의 032-440-8306

(해외에 있는 친지에게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Cover Story

투모로우시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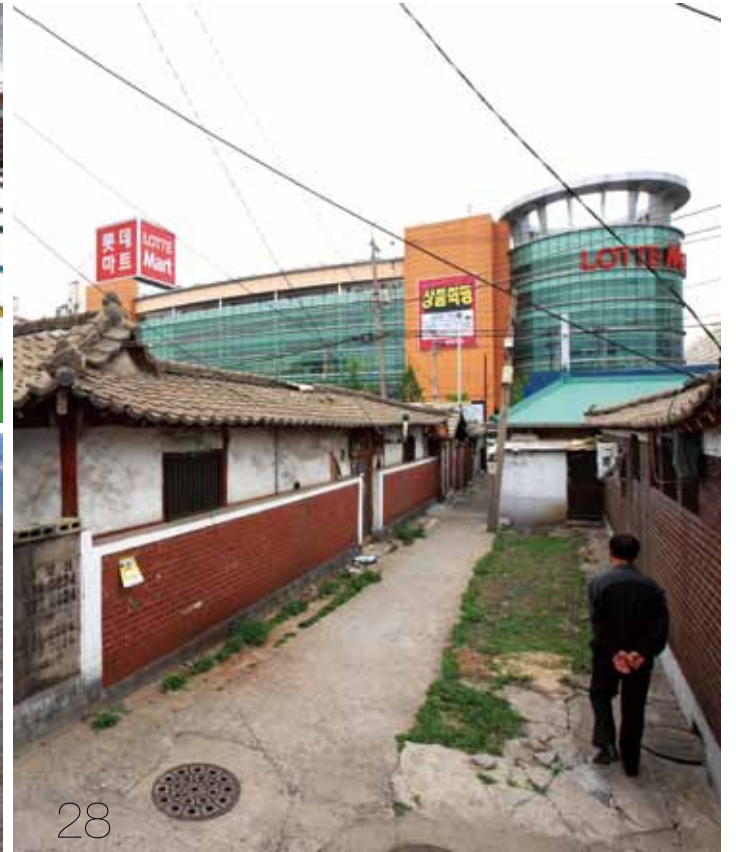
스쳐 지나가면 보이지 않지만, 차에서 내려 꼼꼼하게 살펴보면 건축물의 놀라운 선(線)이 보입니다.

인천이란 도시가 꼭 그러합니다.

잠깐이라도 좋습니다.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위를 살펴보세요. 인천의 진귀(珍貴)가 새롭게 보입니다.

여기는 투모로우시티입니다.

투모로우시티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습니다.



06 **Special** 그곳은 온통 초록빛... 숲으로 가다

10 **Global Incheon** 그날 하루, 그곳은 '필리핀'이었다

14 **Focus** 제물포스마트타운

18 **공간** UNESCO A,poRT

20 **Culture News** 문화뉴스, 이달의 공연전시

24 **Zoom In** 인천만 조력발전소 논쟁

28 **Old But New** 산곡동

32 **당신을 지원합니다** 인천시자살예방센터

34 **사람과 사람** 서병철, DJ용

38 **News plus** 2014 AG 문학수영장 착공

말라리아 방역물품 북한 전달

40 **Civic News** 시정뉴스

43 **Council News** 의정뉴스

46 **별난 물건, 별난 역사** 우편

48 **책 읽는 인천** 구군 독서사업

50 **건강백세** 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51 **외국인 칼럼** 인천에서 소박한 삶 즐기다

52 **Infobox** 생활정보

56 **Spot the Difference** 다른 그림 찾기

57 **Reader's Photo** 김치찰국

58 **모닝커피 한잔** 박규홍 인천교통공사 CEO

06 Special | 숲 그곳은 온통 초록빛... 숲으로 가다

나는 지금 숲에 있다. 보이는 것은 온통 초록빛. 하늘은 맑고 푸르고 공기는 상쾌하며 기온은 더 없이 완벽하다. 빛나는 6월, 나는 지금 숲의 품에 안겨 있다.

14 Focus | 제물포스마트타운 작지만 큰 거인 키운다

우리가 스마트시대를 맞아 창업에 도전하는 젊은이들을 위해 제물포스마트타운(JST)을 조성, 청년일자리 마련에 발 벗고 나섰다. 자신감과 도전 정신이 바탕인 벤처창업으로 청년일지리를 마련하고 인천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24 Zoom In | 인천만 조력발전소 논쟁 갯벌을 전기와 바꿀 순 없다

갯벌은 살아있다. 강화 갯벌 속엔 꽃게, 황복, 낙지, 주꾸미, 바지락이 바닷물 가득 머금은 부드러운 진흙에 몸을 숨기며 살아가고 있다. 우리시는 인천만에 조력발전소를 건설하면 여의도 면적의 6.5배에 달하는 갯벌이 사라져 환경이 파괴되기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소통과 화합 communication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

인천시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굿모닝인천(goodmorning.incheon.go.kr)
인터넷방송 민트TV(tv.incheon.go.kr)
인터넷신문 I - view(enews.incheon.go.kr)
블로그(blog.naver.com/flyic)
트위터(twitter.com/smartincheon)
미투데이(me2day.net/incheon4u)

페이스북(www.facebook.com/visionincheon)을 통해 인천과 만나세요.
시민 여러분의 의견이라면, 쓰든 달든 언제나 환영합니다.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인천에 대한 생각과 인천의 발전을 위한 제언 등을 자유롭게 적어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변인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 032-440-8305 홈페이지(goodmorning.incheon.go.kr)로도 받습니다. 마감은 매월 20일까지입니다. 응모하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접수됩니다.

어린이 꿈 제작소로 GO!

<굿모닝인천>이 소개한 '어린이 꿈 제작소'를 읽고 아이들과 함께 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장에 다니느라 평소 아이들과 잘 놀아주지 못해 미안했는데, 인천에 있는 다양한 어린이 체험관에 가면 아이들과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_ 안동원 부평구 삼산동

그 거리에는 꿈이 있습니다

<굿모닝인천> Old but New에서 용현을 소개하더군요. 조모님과 부친께서 한국전쟁으로 황해도에서 피난을 오신 후 용현동에 터를 잡으셨고, 저도 태어나서 초등학교 입학 때까지 독쟁이고개 아래 용현시장 근처에 살았습니다. 20대 때는 인하대 후문에서 시작하는 '먹자골목'에서 친구들과 어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덕분에 옛 추억에 빠져 봅니다.

_ 오원택 연수구 옥련동

인천의 더 큰 발전을 기대해

안녕하세요. <굿모닝인천>을 사랑하는 애독자입니다. 매달 인천의 소식과 따뜻한 이야기가 잘 보고 있습니다. 책 한 권을 만들기 위해 수고하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인천의 더 큰 발전을 기대해봅니다.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 파이팅!

_ 이양숙 계양구 작전동

인천어린이과학관 기대돼요

인천에 어린이들과 함께 갈만한 곳이 많더라고요. <굿모닝인천> '어린이 꿈 제작소'를 읽고 알게 되었습니다. 인천에서 가까운 곳에 사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둘러보려 합니다. 특히 최근에 문을 연 인천어린이과학관이 기대돼요. 전국에서 최초로 문을 연 어린이과학관이라니 이번 주에 꼭 가봐야겠습니다.

_ 김상현 경기도 광명시

새달 새날이면 기다리는 인천소식

인천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가득한 <굿모닝인천>. 매월 인천에 살면서 도움이 되는 정보가 가득하고, 시정 소식도 자세히 알 수 있어 좋아요. 시장님의 행보와 시의 주요 사업을 이 책을 통해 본답니다. 그래서 새달 새날이면 항상 <굿모닝인천>을 기다려요.

_ 조소정 서구 석남3동

여름철 정보를 알려주세요

항상 그리운 고향 소식을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굿모닝인천> 다음 호는 벌써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6월호네요. 여름철 건강관리, 피부관리 등 생활에 밀접한 정보를 전해주는 건 어떨까요? 물론 인천소식도 반갑지만,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도 전해주면 고맙겠습니다.

_ 이병화 서울시 노원구

스마트폰으로 인천을 만나다

이제 스마트폰으로 인천시를 만날 수가 있네요. 어플리케이션 인천시미디어를 다운받아 손안에서 인천에 대한 역사와 정보를 보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인천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볼 수 있어 매우 좋네요. 친구들에게도 널리 알려야겠어요. 빠르고 가깝게 소통하는 인천, 파이팅!

_ 김수연 남동구 논현동

젊은이들의 꿈을 키워줘서 고마워요

제물포스마트타운 설립에 관한 소식을 신문으로 접했습니다. 일자리 부족 특히 청년 실업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요즘, 인천이 청년들의 꿈을 지원하는 데 앞장 서 반갑습니다. 젊은이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열정에 시의 지원이 더해져 인천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두 모두 힘내요.

_ 서병철 동구 송림동



시민께서 송영길 시장 트위터(@bulloger)를 통해 문의한 것에 대한 해당 부서의 답변입니다.

@bulloger 시장님, 송도 센트럴파크 내 홍물스러운 바이블엑스포 조형물을 치워주세요. 시민의 심터잡아요.

바이블엑스포는 지난해 개장 직후 태풍 곤파스의 피해를 입어 행사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수차례 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를 촉구했으나 행사주최 측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강제철거) 절차를 진행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행사주최 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소송 중에 있어, 판결까지는 행정대집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bulloger 최근 개관한 작전도서관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책이 너무 없어서 속상했어요. 그래도 버스타고 계양도서관까지 가야했는데 가까운 데 도서관 생겨서 기뻐요.

작전도서관은 1만7천696권의 장서를 갖추고 개관했으며, 그 중 5천여 권은 입고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구입도서관인 관계로 시립도서관인 계양도서관(16만여 권)에 비해 장서가 부족하지만, 도서관 이용자의 희망도서 신청 등을 반영하고 신간 도서를 구입해 보유 장서량을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bulloger 시장님, 콜택시를 탔는데 인천공항은 미터로 못 간다며 승차거부합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우리시에서는 택시의 승차 거부, 미터기 요금 미적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승차거부를 당하신 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공항에 미터기요금으로 못 간다는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시 교통불편신고센터(440-8370)로 차량번호를 확인 후 신고하시면 행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찾아주세요

이름 김혜진(당시 만 5세, 여)
발생일자 1983년 12월 25일(일)
발생장소 부평구 일신동
신체특징 앉으면 허리가 약간 굽음, 왼쪽 눈에만 쌍꺼풀이 있음
제보처 보건복지부위탁 실종아동전문기관
02-777-0182
www.missingchild.or.kr



그곳은 온통 초록빛... 숲으로 가다

나는 지금 숲에 있다. 보이는 것은 온통 초록빛. 하늘은 맑고 푸르고 공기는 상쾌하며 기온은 더 없이 완벽하다. 빛나는 6월, 나는 지금 숲의 품에 안겨 있다.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석모도 자연휴양림



숲은 온통 초록빛. 뭉게구름처럼 피어난 나무와 풀이 푸르게 빛나고, 그 위에 도르르 떨어지는 이슬방울도 초록으로 물든다. 바람결 따라 나부끼는 잎 사이로 살짝살짝 비추는 햇빛도, 수풀 사이 흐르는 물줄기도 초록으로 반짝인다. 숲에는 깨끗한 물이 흐른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흙은 이를 흠뻑 머금어 깨끗이 걸러낸 후 숲에 다시 내어준다. 겨울을 담아 놓은 듯 차갑고 투명한 그 물은 청아한 소리를 내며 산골짜기를 흐르고 흐른다. 숲은 깨끗한 공기로 가득 차 있다. 나무는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와 먼지를 빨아들이고 신선한 산소를 내뿜는다. 도심의 텅텅난 공기에 익숙한 우리에게 숲통을 확 트는 상쾌한 공기는 놀라운 기쁨이다. 숲은 고요하다. 숲에 들어서는 순간 세상의 소란스러움으로부터 해방이다. 뻘뻘하게 자라난 나무는 세상의 온갖 소음을 잠재운다. 그곳에선 나뭇잎이 한들거리고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섬세한 소리만이 귓가를 고요히 울릴 뿐이다. 숲에는 싱그러운 향이 가득하다. 풀 향기와 흙냄새가 어우러져 피어오르고 야생화가 바람에 몸을 맡긴 채 잔잔한 향기를 흠날린다. 풀과 나무, 깨끗한 물과 공기, 좋은 향기 그리고 고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6월, 우리는 숲으로 간다.

석모도 자연휴양림

파란 바다와 초록의 신록이 어우러져 마음을 푸르게 물들이는 휴식처. 강화군에서 운영하는 석모도 자연휴양림이 인천의 휴양림으로는 처음으로 지난 4월 문을 열었다. 산림문화휴양관 1동 16실(4인실 14곳, 10인실 2곳)과 100명을 한번에 수용할 수 있는 숲속 수련장, 식당·매장, 관리사무소 등의 편의시설을 갖췄다. 휴양관에는 TV, 냉장고, 에어컨, 침구 등이 있어 펜션처럼 이용할 수 있다. 오는 10월 숙박시설 숲속의 집 14동과 야외취수장, 팔각전망대 등을 추가로 세우고 휴양림 주변에 산책로와 온실 등을 갖춘 수목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가는 길 | 강화 → 외포리 이정표를 따라 30분 정도 가 외포리선착장 도착 → 카페리 승선(삼보해운 932-7324) → 석모도 → 삼산초등학교 → 석모도 휴양림

문의 | 석모도 자연휴양림 932-1100, forest.ganghwa.go.kr



무의도 호룡국산

인천대공원 수목원

계양산 삼림욕장

인천 도심에서 가장 높은 계양산 자락에도 싱그러운 기운 가득한 삼림욕장이 있다. 계양공원 일대에 펼쳐진 이 삼림욕장은 계양산 흙에 맞는 수목을 심어 자연 그대로 조성했다. 소나무, 참나무, 패죽나무, 산사나무, 계수나무가 푸르게 드리워져 선선하게 마음을 덮어 준다. 또 식물 41종 약 1만5천여 본이 가득 핀 야생화 꽃 단지와 430m에 이르는 산책로가 있어 자연과 하나되게 한다. 그리고 가는 길에 약수터와 지압로가 있어 건강을 챙기며 느긋하게 여유로운 한때를 즐길 수 있다.

가는 길 | 계산삼거리 → 서구청, 검단, 인천공항 방향 → 오른쪽 골목 / 계산역 5번 출구 혹은 경인교대역 1번 출구

버스 1, 79, 120, 770번 자연폴장(혹은 삼림욕장) 하차

문의 | 계양구 공원녹지과 450-5655

무의도 호룡국산

무의도 여행의 묘미는 섬 산행이다. 무의도에는 ‘서해의 알프스’라 불리는 호룡국산과 국사봉이 여인의 가슴처럼 봉긋 솟아있다. 호룡국산 오르는 길은 쉬엄쉬엄 산을 오르며 바다의 경치를 감상하기 좋다. 산행 중 내려다보이는 바다와 섬의 아름다운 풍경이 발걸음을 느리게 붙잡는다. 산길은 토질이 좋고 솔잎이 많이 떨어져 있어 폭신평신 쿠션감이 좋다. 또 서어나무와 소나무 수만 그루가 군락을 이루어 싱그러운 자연의 기운이 한껏 전해진다.

가는 길 | 인천공항고속도로 → 신불나들목 지나 1km → 용유·무의 쪽 진입로 → 무의도 방면 / 잠진도~무의도 간

도선 30분 간격 운항(무의해운 : 751-3354, 5)

문의 | 용유출장소 무의지소 760-6880

덕적도 서포리 소나무 숲

덕적도는 초록빛 천지다. 섬 전체를 감싸 안은 소나무 숲. 숲 아래 펼쳐진 바다도 깊디깊어 옥빛이다. 금방이라도 온 세상에 푸른 물을 퍼트릴 것만 같다. 물이 깊어 ‘큰물’이라고 불리는 덕적도는 자연 경관이 빼어나기로 이름이 높다. 그 중에서도 그림처럼 내려앉은 서포리해변은 서해 최고의 바닷가로 손꼽힌다. 소나무 숲이 백여 년 세월을 안고 드리워져 있고 곱디고운 모래사장이 2km에 걸쳐 아득히 펼쳐 있다. 간조 시에도 물이 거의 빠지지 않고 갯벌이 드러나지 않아 산림욕을 하면서 바다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가는 길 | 인천연안여객터미널 → 쾌속선(우리고속훼리 : 887-2891~5) → 덕적도

문의 | 덕적면사무소 899-3710

인천대공원 수목원

관모산과 상아산을 병풍삼아 그림처럼 펼쳐진 인천대공원. 그중에서도 23만m²에 이르는 푸른 대지에 펼쳐진 수목원은 팍팍한 삶에 여유를 비추는 도심의 쉼터다. 수목원은 식물 21만4천여 본이 싱싱하게 자라며 구석구석 다양한 주제로 이뤄져 있다. 오감원은 오감을 활짝 열고 보고 만지며 자연을 온전히 느끼게 한다. 사계원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 아름다움을 뽑내는 꽃과 나무가 자라고 있다. 바닷가와 해안사구를 고스란히 옮겨놓은 해안사구원도 볼거리다. 인천 150여 섬에서 자생하는 순비기나무, 통보리사초 등 해안식물이 두 눈 가득 마음 가득 푸르름을 전한다.

가는 길 | 경인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도로 교차지점 → 판교 방향으로 5분 정도 주행 → 장수동 방향으로 우회전 /

서창인터체인지(제2경인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교차지점) → 부천 방향 약 3분 거리

문의 | 인천대공원 466-7282

덕적도



숲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삼림욕’

초록으로 빛나는 6월. 숲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몸을 맑게 하는 삼림욕을 즐기기에 좋은 때다.

숲은 각종 세균과 해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피톤치드(Phytoncide)와 테르펜(Terpene)이라는 방향성 물질을 내뿜는다. 이는 공기를 맑게 해 심폐기능을 강화하고, 호르몬의 순환과 노폐물의 분비를 도와 몸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또한 냇물이나 계곡은 주위의 공기를 미세한 음이온으로 만드는데, 음전기를 띤 이 미세한 물방울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양이온을 가라앉혀 마음을 다스린다.

삼림욕으로 숲의 생명력을 흠뻑 빨아들이고 싶다면 광합성이 활발한 초여름에서 가을까지가 좋다.

장소는 산 중턱 또 습도가 높고 폭 파여 테르펜이 오래도록 머무는 계곡이 적당하다. 그리고 일사량이 많고 온도와 습도가 높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또는 새벽 6시에 하는 것이 좋다.



The philippino day

그날 하루 그곳은 '필리핀' 이었다

글 유동현 본지편집장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지난 5월 8일(일) 송도국제도시에서는 필리핀 현지 축제의 분위기를 흠뻑 맛볼 수 있었다. 인천 거주 필리핀 이주민들이 기획과 준비 과정부터 직접 참여하여 스스로 마련한 프로그램 '필리핀의 날' 행사가 송도 파콘시티에서 열렸다. 개막에 앞서 진행된 공동 미사는 오스발도 파딜라(Osvaldo Padilla) 주한 교황대사가 직접 미사를 집전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개막식에는 송영길 시장, 루이스 크루즈 주한 필리핀 대사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축하의 자리를 빛냈다. 1부에서는 필리핀 전통공연팀의 화려한 플라워 부채춤과 다 문화가정 자녀들의 공연이 있었다. 2부에서는 필리핀 권투 영웅 빠기아오의 경기 시청과 필리핀 문화, 음식 체험, 커뮤니티별 공연, 경품추첨 등이 이어졌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3부에서는 사전예선을 거쳐 엄선된 13팀의 참가자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가창력을 선보이는 경연대회가 열렸다. 현재 인천에는 500여 명의 필리핀인이 '인천인'으로 살고 있다.



필리핀 자매도시와 뜨거운 교류



The philippino day



philippine

우리는 2008년 필리핀 알바이주와 마닐라시 등과 우호·자매도시 협약을 맺고 꾸준히 교류하고 있다. 신동근 정부부시장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알바이주를 방문, 두 도시간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신 부시장은 사르페 살사다 알바이주 주지사를 만나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를 부탁했고, 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두 도시간 재난경감 프로그램 등을 구축하는 데 서로 협력키로 했다. 이어 알바이주 경제인단과 면담을 갖고 인천과 필리핀상공인들의 교류 협력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우리는 심장병 어린이 치료와 학교 지원 사업 등도 벌이고 있다. 지난 3월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간 가천의대길병원 최덕영 소아심장과 교수 등 의료진 3명과 우리시 국제협력관실 천영순 팀장은 자매도시인 마닐라시를 찾아 심장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호세아마트 산토스병원에 임시 진료소를 마련한 의료진은 어린이 53명을 검진하고, 치료가 필요한 어린이 6명을 발견했다. 이 어린이들은 6월 안에 길병원으로 초청해 치료할 계획이다.

이번 필리핀 의료봉사는 지난 3월 9일 우리시와 길병원이 맺은 '아시아권 자매도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우리시와 길병원은 협약에 따라 필리핀에 이어 인도네시아 반둥주와 베트남 하이퐁시를 방문해 심장병 어린이를 치료할 예정이다.

한편 마닐라 시립동물원 입구에는 우리시가 제작해 기증한 조형물 '파도가 전해준 사랑'이 있는데, 이는 시민들의 사진촬영 장소로 애용되고 있다. 우리시에 설치할 마닐라시 조형물은 인천의 의사가 마닐라의 심장병 어린이를 안고 있는 형상으로 제작해 마닐라시에서 기증할 예정이다.



작지만 (Small Giants) 큰 거인 키운다

우리시가 스마트시대를 맞아 창업에 도전하는 젊은이들을 위해 제물포스마트타운(JST)을 조성, 청년일자리 마련에 발 벗고 나섰다. 제2의 벤처 붐을 일으켜 기업이 정신으로 뚝뚝 무장한 청년들을 키워내기 위함이다. 자신감과 도전정신이 바탕인 벤처창업으로 청년일 자리를 마련하고 인천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우리시는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을 추진하기 위해 차별화된 창업아이디어를 가진 인재들에게 경제적 부담은 낮추고 기회는 높이는 창업의 중심(Core), 7년간의 케어(Care), 실패자 치료(Cure) 등 벤처 3C 정책으로 올해 안에 100명의 창업 성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이 실리콘밸리와 같은 벤처중심지가 될 날이 멀지 않았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사진 홍승훈 자유사진가

왜 벤처인가

지난 5월 18일 재능대학 5층, 1기 창업교육생으로 선발된 75명의 예비기업인들이 '경영시뮬레이션'에 관한 강의를 듣고 있다. 강사는 이 분야의 전문가로 내용은 창업코칭에 관한 것이다. 교육생들은 창업에 대한 부푼 꿈을 안고 뒤편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강의내용을 메모하면서 수업에 열중하고 있다. 20대부터 50대까지 연령층도 다양하다. 창업내용도 1인 기업부터 다인 기업까지 창업할 기업의 세부계획까지 세운 사람도 많았다.

인천대창업동아리



벤처기업이 모여있는 IT타워



제물포스마트타운(JST)은 창의, 도전, 열정을 가진 인재들을 발굴하여 성공창업을 위한 교육, 공간, 사업자금 등 단계별로 맞춤 지원하는 인천형 창업촉진 프로그램이다. 벤처인 양성 사관학교나 마찬가지다. JST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치고 사업화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주고 청년 벤처기업 육성을 목표로 지난 5월 2일 첫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생은 창업준비 공간을 무상으로 지원받고, 우수 강사진으로부터 64시간 동안 창업교육과 관련된 강의를 듣는다. 창업교육은 8명 단위로 팀이 구성되며 각 팀별로 전담코치의 창업코칭이 이뤄진다. 지식재산 출원 시 지적재산권 등록 등의 다양한 혜택도 지원한다. 교육과정 이수 후 희망자에 한해 가상으로 창업을 체험할 수 있는 모의창업과정을 운영하며, 6개월 이내 창업시 2백만원의 창업장려금을 지원한다. 이들에게는 편의시설 무료이용, 변리사와 세무사로부터의 맞춤형 무료 컨설팅 자문, 상해보험 가입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된 예비창업자는 3백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며, 성공한 벤처분야 CEO와 1대1 멘토링을 통해 사업성공을 돕는다. 또 살아있는 벤처신화의 모델인 실리콘밸리 연수기회, 교육생 대상전원 상해보험 가입 등 창업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

교육생 중 창업 준비생들에겐 창업보육공간이 제공된다.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이 입주해 있는 도화동 IT타워에 창업공간이 마련된다. 개인사무실 15개, 공동사무실 50개의 창업공간이 마련되어 6개월간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들에게 전담매니저가 지정되고, 편의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자금유치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JST에서 창업 기반을 마련한 벤처기업은 창업지원 기관의 창업보육센터로 옮겨야 하며 이곳에서 임대보증금 일부를 보조받고, 디자인 시제품, 해외전시 등 다양한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타시도와 다른 JST의 차별화된 장점은 일단 창업한 기업은 선발하지 않으며 국내에서 최고의 사업금인 3억원을 지원한다는 점, 창업당시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창업해서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7년 동안 시에서 관리한다.

우리시의 JST사업은 전국적으로도 인정을 받았다. 최근 제16회 전국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사업의 현실적인 짜임새와 조직성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스타트업(Start-up) 포럼을 시작으로 예비창업자 교육에 들어간 상태로 아직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가시적 성과를 말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지만 전국 대회에서 JST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우리시는 하반기에도 125명의 예비창업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올해만 총 50억원을 지원한다. 꿈을 현실로 이루기 위한 젊은이들의 도전이 뜨겁다.

JST 예비 창업생 한상미씨

“문자광고 어플로 창업할래요”

발명에 소질이 있어 실용신안 15건을 제출해 3건을 등록한 재주많은 소녀도 제물포스마트타운 창업과정 교육을 받고 있다. 한상미(20)씨는 16살인 중학3년때부터 발명에 관심을 갖고 특이한 물건들을 만들어왔다. 퍼즐로 만든 세계교육지도, 입식허리 등반이, 한글학습보조 플래시카드 등은 실용신안으로 등록돼 발명실력을 인정 받았다.

삼수생인 한씨는 어려서부터 자신의 아이디어가 채택되어 상을 받는 것에 재미가 붙어 발명을 계속해 왔다. 이번 JST에서는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광고가 따라붙는 ‘꼬리로 달리는 문자광고’ 사업계획서를 내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서씨는 이 아이템으로 창업을 준비 중이며 사업을 더 잘하기 위해 경영학과 합격을 목표로 창업과 공부 두 마리 토끼잡기 중이다.



JST 예비 창업생 서지원씨

“대학 소셜커머스 시장은 내 손안에”

서지원씨(25, 인하대학교 시각디자인과 4)는 대학생들을 위한 소셜커머스 창업을 준비 중이다. 대학 근처의 음식점, 미장원, 안경, 커피전문점, 의류매장 등과 계약을 맺고 자신의 사이트에 가입한 학생들에게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학생들은 할인쿠폰과 학생증을 제시하면 할인된 다양한 품목을 구매한 후 이용할 수 있다. 서씨는 소셜커머스 사업을 6개월 전부터 구상했고, 뜻을 같이하는 친구들 10명과 시스템을 구축하며 사업주들을 만나면서, 창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서씨가 창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친구가 청년사업을 통해 성공한 모습을 보고 자신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였다.

제물포스마트타운 창업교육과정에 등록한 것도 창업하는데 실질적 도움을 받기 위해서다. JST에서 성공한 CEO의 면담과 강의도 힘이 된다. 서씨는 자신의 아이템이 소셜커머스의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것이기에 차별화해서 꼭 성공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벤처육성 지원 기관

벤처기업에 날개를 단다

제물포스마트타운이 창업 준비를 돕는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한다면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송도테크노파크, 인천경제통상진흥원 등은 창업한 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지원하는 기관이다.

송도테크노파크는 중소기업기술 분야 지원에 포커스가 맞춰져있다. 기술개발, 창업보육, 바이오산업지원 등 다양한 중소기업 양성을 위해 실질적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다. 우수아이디어의 경우 상업화를 위해 시제품제작, 소비자 반응평가, 마케팅소요자금을 지원하고 수출유망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특허출원 비용 지원을 돕는다.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시험지원사업, 차세대 자동차부품 전문 인력 양성 교육 등을 통해 벤처기업들의 활발한 기업활동을 지원한다.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사업화, 마케팅, 인증지원, 기술개발을 돕고 있다. 특히 문화콘텐츠는 특화되어 있다. 문화콘텐츠 육성을 위해 문화관광부로부터 2008년 12월 도화동 일대를 문화상업지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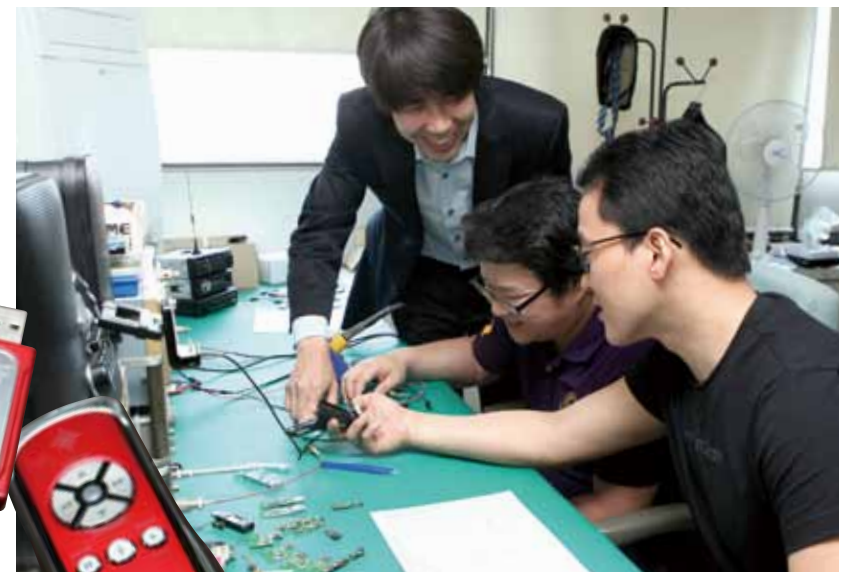
지정받아 IT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기틀을 다지고 있다. 또 남구 문화콘텐츠지원센터와 연계해 이곳에 입주해 있는 10여 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인천문화콘텐츠개발 아이디어 공모전, 2011년 인천IT기술상, 기업임대로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꾀하고 있다.

인천경제통상진흥원은 벤처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금, 기술, 인력, 디자인, 마케팅 분야 등 6개 분야 41개 사업을 지원한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원스톱 서비스로 완벽하게 해결하고 최고의 전문성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구현한다.

특히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디자인지원센터를 위탁받아 운영, 활발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벤처기업 창업자금은 7억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8년으로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이다. 벤처집적시설 입주자금도 1억원 내에서 지원, 벤처기업들의 시설입주를 돕는다. 신청방법은 전화상담과 구비서류를 갖춘뒤 진흥원에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가온-INT



art space UNESCO A.poRT

시장 건너 골목길 지나,
갤러리에 이른다

중구 신포시장 가까이 오래된 칼국수집 골목에 가면 작은 갤러리 '유네스코 에이.포트(UNESCO A.poRT)'가 있다. 이곳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기나긴 세월 살아 온 이야기가 예술과 어우러져 역사가 되어 흐른다.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사진 홍승훈 자유사진가

후미진 골목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다

갤러리를 찾아 골목길을 헤맨다. 활기 넘치는 신포문화의 거리를 지나 신포시장을 가로질러 후미진 칼국수집 골목에 들어선다. 유네스코 에이.포트(UNESCO A.poRT)는 어느 갤러리처럼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그 흔한 이정표 하나 없이 후미진 골목 구석에 자리 잡고 있어 찾기가 힘들다. 그래서 마주했을 때 더 반갑다. 우연히 골목길을 지나던 사람이라면 예기치 못한 오아시스를 만나는 기쁨을 맛보리라.

'유네스코 에이.포트(UNESCO A.poRT)'가 중구 신포시장 가까운 오래된 칼국수집 골목에 지난달 6일 문을 열었다. 작은 갤러리이지만 의미는 남다르다. 이 일본식 낡은 2층 목조 건물의 역사는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른 새벽 하루를 시작하고 늦은 저녁 일을 마치고 삼겹살에 소주잔잔 곁치며 피로를 푸는 보통 사람들의 삶. 그 특별할 것 없는 사람들이 80여 년 살아 온 이야기가 문화와 역사가 되어 질박하게 배어 있다.



오래된 칼국수집에서 인천을 찾다

"2~3년 전까지만 해도 칼국수집이었어요. 그 후 재개발의 바람을 피해 오히려 방치돼 있었지요. 그 끊어질 듯 했던 역사를 예술로 이어가려 합니다." 갤러리의 아트디렉터인 작가 이탈은 개인작업실을 찾던 중 우연히 이곳을 발견해 의미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 뜻을 유네스코인천시협회가 받아들여, 유네스코인천시협회 부설 비영리 전시공간 유네스코 에이.포트가 탄생했다. 이곳은 순수예술을 지향하는 동시대 작가를 초대해 인천의 문화예술을 꽃피우고, 국제예술과 교류하며 문화예술 활동을 폭넓게 지원하게 된다.

"인천 정체성 찾기의 일환입니다. 신포동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 인생과 예술을 논하던 곳으로 한때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자양분 역할을 했습니다. 무분별한 도시개발로 단절된 도시의 생명을 예술로 다시 살리려 합니다." 유네스코인천시협회 하석용 회장은 유네스코 에이.포트를 기점으로 신포동에 보석 같은 예술공간을 하나 둘 만들어 인천 본연의 모습을 찾고 싶다고 했다. 그가 '그날'을 그리며 바라보는 창 너머 오래된 골목길에 햇살이 곱게 떨어진다.



골목에 예술을 꽃피운 사람들. 왼쪽부터 아트디렉터 이탈, 큐레이터 이라파엘, 유네스코인천시협회 회장 하석용, 후원인 치과의사 이계혁

삶, 역사가 되어 흐른다

인천의 정체성을 찾는 여정. 그 시작인만큼 개관 전시에 많은 고민이 따랐다. 그래서 '예술이 늙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인천의 원로작가 세 분을 모셔 릴레이 개인전을 열기로 했다. 작가들이 사전에 간담회를 열어 전시의 방향과 내용, 형식을 정했다. 전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그렇게 탄생했다. 전시회는 지난 5월 강하진을 시작으로, 이번 달 12일까지 김경인, 이달 17일에서 다음달 3일까지 홍윤표 작가 순으로 열린다. 각각의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세 사람의 치열한 고민과 열정이 살갗에 닿듯 전해진다.

칼국수집에서 갤러리로 오늘을 살고 있는 여든 살 먹은 건물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비스듬히 기울어 있다. 그리고 그 옆에 새로 지은 건물이 기댈 수 있도록 어깨를 빌려주고 있다. 그렇게 신포동 골목길은 지나온 날과 오늘을 사는 이 순간이 켜켜이 쌓여 역사가 되어 흐르고 있다.

관람시간 : 오전 11시~오후 7시 / 화요일~일요일(월요일 휴관)
가는 길 : 전철 1호선 동인천역 2번 출구. 신포시장 뒤편 신포순대
본점 바로 옆으로 난 좁은 골목길 일명 칼국수집 골목으로 들어간다.
문의 : 762-2406





인천시립교향악단 기획연주 <차이코프스키 협주곡의 밤>
일시 6월 3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문의 엔티켓 1588-2341



인천&아츠 커피콘서트
<포크음악의 귀환 동물원 콘서트>
일시 6월 22일(수) 오후 2시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대공연장
티켓 전석 1만원
문의 엔티켓 1588-2341



백건우, 그리고 리스트
일시 6월 17일(금) 오후 8시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티켓 R석 6만원, S석 4만5천원, 학생 1만원
문의 500-2000



인천시립무용단 특별기획 <춤추는 도시-인천>
개막공연 10일(금) 오후 7시 30분 / 소공연장
릴레이댄스 11일(토) 오후 7시 / 야외공연장
특별기획공연 I <우수단체 레퍼토리> / 12일(일) 오후 4시 / 소공연장
특별기획공연 II <인천을 빛낸 차세대 무용가전> / 15일(수) 오후 7시 30분 / 소공연장
티켓 소공연장 - 전석 1만원, 야외공연장 - 무료
문의 엔티켓 1588-2341

인천시립교향악단 기획연주 <차이코프스키 협주곡의 밤>

피아니스트 서해경, 인천시향과 차이코프스키를 노래하다. 러시아 최고의 작곡가인 차이코프스키의 음악에 흠뻑 빠질 수 있는 <차이코프스키 협주곡의 밤>이 열린다. 1부에서는 드라마틱한 표현력과 머리카락을 서게 하는 탁월한 기교로 국제적 명성을 얻고 있는 피아니스트 서해경이 피아노 협주곡 제2번을 연주한다. 또 2부에서는 워싱턴 국제 콩쿠르 우승 이후 '제2의 정경화'라는 찬사와 기대를 받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바이올리니스트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경선과 함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를 들려준다.

인천&아츠 커피콘서트 <포크음악의 귀환 동물원 콘서트>

지난 3년간 인천을 향긋한 커피 향으로 물들였던 인천&아츠 <커피콘서트>는 자신의 삶을 창의적으로 가꾸는 주부와 휴식을 원하는 직장인을 위한 시간이다. 무대에 오른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와 전석 1만원이라는 놀라운 가격은 관객이 뽑은 커피콘서트만의 매력이다. 이번 <커피콘서트>에는 포크음악계의 대표주자 동물원이 찾아온다. 우리 사회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따뜻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386세대를 대표하는 그룹 동물원은 '널 사랑하겠어', '제주도의 푸른 밤' 등 삶의 고단함 속에서도 희망이 있음을 노래한다. 커피향과 어울리는 잔잔하고 아름다운 선율 속에 그 시절의 젊음과 아련한 추억을 떠올려 보자.

인천시립무용단 특별기획 <춤추는 도시-인천>

인천에서 시작된 새로운 춤 축제 <춤추는 도시-인천>은 경제도약을 넘어 문화 중심의 도시로서의 성장을 꿈꾸는 인천의 새로운 이름이다. 인천의 춤 활성화와 문화 발전을 위해 춤꾼과 관객이 하나 되어 만드는 춤축제 <춤추는 도시-인천>. 관객과 예술인의 열린 만남을 위한 <개막공연>, 인천과 중앙무대와의 상호 교류 및 작품 소개를 위한 <특별기획공연 I, II>, 지역예술인을 위한 열린 무대 <3시간 릴레이댄스>로 구성된다. 올해로 4회를 맞은 <춤추는 도시-인천>은 6월을 흥겹고 신나는 축제의 계절로 만들어 줄 것이다.

백건우, 그리고 리스트

일주일에 걸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회, 메시앙 탄생 100주년 기념 <아기 예수를 바라보는 20개의 시선>전곡 연주회, 한국의 젊은 피아니스트들과 함께 한 4대의 피아노 연주회 등 도전을 멈추지 않는 구도자적 자세로 한국 클래식계 큰 거목으로 자리잡은 피아니스트 백건우. 그가 2011년, 리스트 탄생 200주년을 맞아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던 '리스트 리사이틀'을 갖는다. 백건우는 이번 연주회를 통해 문학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리스트의 작품들을 연주하며, 텍스트를 공연 프로그램북에 꼼꼼히 넣어 관객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갯벌을 담다

사진가 최병관 전시회

인천은 갯벌이 아름다운 고장이다. 하루에 두 번 어김없이 바닷물이 밀려가고 나면 드넓은 갯벌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그때가 되면 진흙탕 속의 무수한 생명체들이 꿈틀거리며 장관을 연출한다. 일찌감치 갯벌의 소중함을 알게 된 고향사람들은 가난한 시절에도 불구하고 삶의 풍요를 누릴 수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갯벌이 우리 주변에서 사라져 가기 시작했다. 자연은 그대로의 모습일 때 더 아름다운 법인데….



잊혀져가는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갯벌을 담다'라는 제목으로 인천의 갯벌을 테마로 한 사진작가 최병관의 작품 30여 점이 6월 2일부터 26일까지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신세계갤러리에 전시된다. 인천 소래 출신의 사진작가 최병관은 무분별한 매립 등으로 사라져 가는 갯벌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기하면서 아름다운 고향 인천과 갯벌에 대한 추억을 사진 속에 담았다. 그의 작품은 전통적인 사진기법을 고수하며 트리밍 등 어떠한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한편 최병관은 지난 2010년 뉴욕 유엔본부 딜리게이트 전시관에서 '한국의 DMZ, 평화와 생명을 찾아서' 전시를 열고, 2000~2003년 전쟁으로 끊어진 경의선 철도 도로 복원

공사 비무장지대 사진작업을 한 바 있다. 1997년 국방부 및 육군본부 위촉작가로 임명되어 휴전선 155마일을 2년간 횡단하며 기록사진으로 남겨 작품집을 출간한 작가로도 유명하다. 최병관 사진전 '갯벌을 담다'를 통해 생명력 있는 갯벌 풍경을 바라보며 아련한 추억과 그 순간의 기억을 함께하기를 바란다.

일정 2011년 6월 2일(목)~26일(일)
장소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신세계갤러리(5F) 메인갤러리
문의 430-1157, 8



아티에솔미당 <황금토끼>

금요일예술무대

6월 3일, 10일, 17일, 24일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 무료

Culture News

6월의 공연 · 전시 Calendar

한강연법 그린피스 해양보물활동 사진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갯벌을 담다... 해변관 사진 展 /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신세계갤러리
유쾌한 한국화, 즐거운 조각 展 / 부평아트센터 갤러리 꽃누리
미술로 보는 인천이야기 / 인천화성고육문화회관 기온갤러리
제6회 환경미술축화제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
목우사각연구학회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창조년환경지킴이 동아리전 '땅 짚고 하늘 보고'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진시실
제10회 손숙희 개인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제1회 김채원 개인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2011년 제10회 인천한국화대전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

SUN	MON	TUE	WEN	THU	FRI	SAT	
<p>5</p> <p>송도창소보고방아단 제4회 정기연주회 오후 5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초대 ☎ 816-7257</p> <p>임오군악상설 공연 "임쑈" (산대예술가!! 판소리 명창 정상화) 오후 7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무료 ☎ 인천광역시 518-1511</p>			<p>1</p> <p>인천예술고등학교 제14회 무용과 정기발표회 오후 7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초대 인천예술고등학교 ☎ 433-3176</p>	<p>2</p> <p>오페라드라마몬스터(여자는 다 그래) 오후 7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R석 2만원, S석 1만원 ☎ BK클래식 010-2337-7999</p>	<p>3</p> <p>인천시립교향악단 기획연주회 차이코프스키 협주곡의 밤 오후 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 시립교향악단 1588-2341</p> <p>오페라드라마몬스터 (여자는 다 그래) 오후 7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R석 2만원, S석 1만원 ☎ BK클래식 010-2337-7999</p> <p>황금토끼(VIVA남성창단) 오후 7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 무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 420-2732</p> <p>라디오 공개방송 백영규의 가교되는 마을' 오후 7시 30분 부평문화사랑방 / 전석 3천원 ☎ 505-5985</p>	<p>4</p> <p>인천예술고등학교 제14회 음악과 정기연주회 오후 5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초대 ☎ 인천예술고등학교 433-3176</p> <p>오페라드라마몬스터 (여자는 다 그래) 오후 7시 7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R석 2만원, S석 1만원 ☎ BK클래식 010-2337-7999</p> <p>황금토끼 인천시립합창단의 (틀려서야 만나는 즐거운 가요) 오후 7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 무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 420-2732</p>	<p>11</p> <p>오페라 '돈 베스팔레' 오후 2시, 7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VIP석 10만원, 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 ☎ 미추홀오페라단 435-1281</p> <p>인천시립무용단 특별기획 제4회 춤추는 도시 - 인천 (필라)미선) 오후 7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전석 무료 ☎ 시립무용단 1986-2341</p>
	<p>6</p>	<p>7</p>	<p>8</p> <p>신화니메타 연락하기 들려주는 음악이야기' 오후 7시30분 부평문화사랑방 전석 3천원 ☎ 507-5986</p>		<p>9</p>	<p>10</p> <p>오페라 '돈 베스팔레' 오후 7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VIP석 10만원, 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 ☎ 미추홀오페라단 435-1281</p> <p>인천시립무용단 특별기획 제4회 춤추는 도시 - 인천 개막 공연 / 오후 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전석 1만원 ☎ 시립무용단 1588-2341</p> <p>황금토끼 (산나는 성으로 떠나는 여행) 오후 7시 / 무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 420-2732</p> <p>전통 춤 드로잉 Drawing 오후 7시 30분 / 전석 3천원 부평문화사랑방 ☎ 뉴누리무용단 505-5985</p>	

갯벌을 전기와 바꿀 순 없다

갯벌은 살아있다. 강화 갯벌 속엔 꽃게, 황복, 낙지, 주꾸미, 바지락이 바닷물 가득 머금은 부드러운 진흙에 몸을 숨기며 살아가고 있다. 바지락과 새들이 좋아하는 먹잇감이 지천으로 널려있어 멸종위기종인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알락꼬리도 요사춘이 찾아오는 생태계의 보고다. 이런 세계적 명품 갯벌에 뜻하지 않게 환경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강화, 옹진군 북도면, 장봉도 일원에 조력발전소를 세우기로 했기 때문이다. 우리시는 인천만에 조력발전소를 건설하면 여의도 면적의 6.5배에 달하는 갯벌이 사라져 환경을 파괴하고, 갯벌을 즐기면서 체험하러 오는 관광객도 줄 것으로 보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조력발전 추진 동기 2012년 신재생에너지 생산 의무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로 명명한 조력발전소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배경에는 전세계 에너지 수급의 불안한 전망과 우리나라 수요에너지 97%가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연구자료에 의하면 석유의 경우 40~50년 후면 완전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석유와 석탄에너지 의존율이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대체에너지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온실가스배출국이다. 지구 온난화 방지 기후변화협약이 발효되면 온실가스 감축 압박이 가중될 것이고, OECD가입국의 위상에 걸맞는 이산화탄소 저감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12년부터는 신재생에너지 생산 의무화 원년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 도입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상황이다. 또 저탄소 녹색성장은 100대 국정과제이자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정부가 건립하고자 하는 인천만 조력발전소의 위치는 강화도 남단~영종도 북단 사이 해역이다. 사업기간은 2011년~2017년까지 약 6~7년간이 걸리고, 사업비는 3조9천억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국책사업. 조력발전 건설에는 방조제 17km, 수차발전기 44기, 수문 20련, 통선문 6개소의 시설이 들어선다.

발전소 건립이 미치는 영향 천연기념물 줄고, 갯벌 생태 훼손

무한한 갯벌가치의 훼손 우리시는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로 천혜의 자원인 강화갯벌 생태면적이 줄어들어 결국 자원이 고갈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감소되는 갯벌면적은 조력발전소 지역내 17.1%, 저어새번식지인 강화갯벌 8km², 습지보호구역인 장봉도 갯벌 18km²로 여의도 면적의 3배에 달한다. 조력발전은 모래와 갯벌이 섞인 혼성갯벌인 강화갯벌의 특성을 변형시켜 결국 갯벌로서의 생명을 잃게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화는 전국 1위의 젓새우와 꽃게 생산지이자 황복, 낙지, 병어, 주꾸미, 광어, 백합, 바지락이 풍부한 곳이다.

갯벌의 가치는 논보다 10~100배 이상이며, 갯벌은 오염물질을 분해시키고 정화하는 '지구의 콩팥'으로 불린다. 이산화탄소 정화기능도 상당하다. 습지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며 생태계를 구성하는 물질의 원천이다.

천연기념물의 감소 21세기 세계적 이슈는 '환경'이다. 강화남단인 불음도, 주문도, 서점도, 교동도 등은 세계적으로 2천마리 밖에 없는 저어새 번식지역이고 그외에도 노랑부리백로, 두루미, 검은머리갈매기 등 법정보호종이 찾아오며, 여름철새인 도요, 물떼새 무리가 여간 10만 개체씩 도래한다. 강화바다는 천연기념물이고, 장봉도는 국토해양부가 2003년 지정한 습지보호구역이다. 갯벌훼손 및 생태환경 변화로 철새개체군의 감소와 서식환경의 심각한 변화가 예측된다.

한강북쪽 침수 우려 6, 7, 8월 우리나라 집중호우 시 조력댐으로 인해 수로가 차단되면 한강, 임진강, 예성강이 만나는 복수로 수위가 상승하고 이로인해 교동, 강화도 저지대와 김포지역, 임진강유역 등 북한지역이 침수될 우려가 높다.





관광객 감소 강화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연 인원은 300~400만명. 강화에 조력발전소를 세우면 거대 인공 구조물로 인해 세계 최대갯벌로서의 독특한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요란한 굴착기 움직임, 석재 등이 뒹굴면서 관광자원은 망가지고 토사 오염이 우려된다. 또 관광객이 크게 줄고 생태관광, 체류관광 등 고품격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뒤따른다.

광범위한 어업 피해 현재 강화의 수산물 어획량 및 도소매 수익은 새우젓만 약 150억원, 주꾸미, 병어 등 240억원 등 연간 75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실제 꽃게 수입만도 한해 1천500억원 이상이다. 조력발전소 건설로 조류의 흐름이 변하고 해저지형이 변형되면 기존 어장이 파괴되거나 이동되어 어장 황폐화가 우려된다. 6~7년간의 공사기간과 발전시설 운용으로 부유물이 증가하고 소음과 진동으로 물고기들의 먹이가 되는 플랑크톤이 폐사되고 산란과 치어 생존율 급감이 예상된다, 이는 어장의 황폐화로 이어져 결국 어민들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된다. 고기가 줄어들면서 수산물 판매량 감소, 관광객 대상 요식업의 타격, 토산물 판매업소의 급감, 실직자 증가 등 경제 타격이 예상된다.

조력발전이란 조력발전은 수차 발전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소양강 댐 등 기존 수력발전기와 원리가 같다. 조력발전은 바다에서 생기는 조수 간만의 차, 즉 썰물과 밀물로 인한 해수면 높이 차에서 생기는 운동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한다. 인천만조력발전소 건설계획은 3조9천억원을 투입해 강화도 남단과 장봉·용유·영종도로 둘러싸인 바다를 17km의 방조제로 연결해 담을 만든 다음 밀물을 거두는 공사다. 물을 가둔 면적만 157.45km²(여의도면적 60배)에 이른다.

조류발전이란 조류발전은 빠른 물살의 힘으로 바람개비처럼 생긴 수차(水車)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방조제를 쌓지 않고 바닷물이 빨리 흘러가는 힘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우리시 입장 과학적 검증, 충분한 검토 거쳐야

인천만 조력발전소 사업은 세계 5대 명품 갯벌인 강화·옹진군 북도면·장봉도 일원의 갯벌 해양 생태계를 훼손하고 수산자원을 고갈시킨다. 또 인천지역과 인접 타시도의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 인천시는 주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과학적 검증과 충분한 검토없이 진행되는 사업에 반대한다. 인천만 조력발전건설 대응을 위한 민관공동대책위는 최근 조력발전 반대 범 시민 서명운동을 벌였고, 온실가스 줄이기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인센티브 차원에서 녹색통장 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국방부와 농식품부도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최근 ‘작전상의 이유로 반대한다’는 이유를 밝혔고, 농식품부는 ‘사업예정지가 수산자원 서식과 산란지로서, 어족자원 관리 차원에서 발전소 건설을 신중히 판단해야’한다는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국방부는 국토해양부가 이 발전소 건설 계획이 포함된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대해 의견을 물어와 내용을 검토한 결과 작전을 할때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인천해역방어사령부의 뜻을 받아들여 발전소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보냈다. 농식품부는 인천만 조력발전 사업이 관할 자치단체나 어민, 주민이 반대하는 등 갈등요소가 많아 이해 당사자와 발전소 건설에 대한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첨부했다.

세계 추세 친환경 에너지 개발 대세

환경선진국 독일은 전체 갯벌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한해 6조원에 달하는 수익을 얻고 있다. 조력발전이 아닌 태양광, 풍력 등 다양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기술개발로 2050년 이면 화석에너지를 전혀 쓰지 않고 전기 생산이 가능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외국에서는 방조제 댐을 건설하지 않는 해양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갯벌과 바다를 살리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갯벌을 보존하고 해양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조류발전 등의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힘을 모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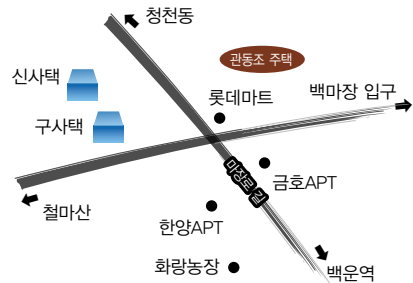


질곡의 외세풍 風 돌고 돈 백마장

전쟁은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다. 일제는 중일전쟁을 위해 부평벌에 병참기지를 만들었고 해방이 돼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미군이 주둔했다. 철마산 밑에서 한가롭게 농사짓고 살던 백마장에도 노동자의 사택과 군부대 그리고 기지촌이 들어서면서 사람과 물자가 넘쳐났다. 7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곳곳에는 아직도 식민통치와 미군 주둔의 질곡의 역사가 고스란히 녹아있다.

글 유동현 본지편집장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백마장이 일제식 지명이나 아니냐 논란이 많다. 1940년 일제는 산곡리(山谷里)의 이름을 하구바조(白馬町)로 바꿨다. 〈부평사〉에 의하면 일찍이 '조선 때 말을 먹이던 곳으로 마장 또는 백마장으로 불렸다'며 백마정으로 이름이 바뀐 것은 일본식 개명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백마정은 해방 후 산곡동으로 다시 불리며 현재에 이른다. 그렇지만 아직도 산곡동은 백마장이란 이름을 완전히 벗지 못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서울역 앞에서 '백마장'행 버스를 운행하면서 인천의 유명한 지명이 되기도 했다.



‘관동조’ 주택의 아픔

1939년 일제는 부평에 일본육군조병창을 설립했다. 인근에 군수기지를 세우기 위해 5개의 일본인 토건하청업체를 참여시켰다. 이 중 간토오구미(關東組)라는 업체는 백마장 일대의 공사를 맡았고 근로보국대에 편성된 한국인들이 이 공사에 투입되었다. 근로자들을 위해 판자로 만든 집들이 들어섰다. 지금의 산곡동 롯데마트 인근이다. 사람들은 이 동네를 ‘관동조’라고 불렀다.

일제가 물러난 후 미군이 부평에 주둔하면서 이곳은 양색시촌으로 그 모습이 바뀌었다. 미군이 떠나자 한국인을 상대하는 집창촌으로 변했다가 현재는 아파트단지가 들어섰다.

롯데마트 길 건너 산곡1동에 들어서면 자로 켜 듯한 10여 개의 골목이 나온다. 골목길 입구에 서면 끝이 가물가물 할 정도의 기다란 길이 나온다. 두부를 자른 것처럼 반듯한 골목에 똑같이 생긴 집들이 빈틈없이 일렬로 도열해 있다. 일제는 조병창과 조선배아령 등 군수기지에서 일할 노동자들을 위해 1941년 조선주택영단을 설립해 다섯 가지 표준형 주택을 설계했다. 이중 20~15평 규모

의 갑(甲)형과 을(乙)형은 일본인들을 위한 단독주택이었고 10~6평의 병(丙)형 이하는 한국인을 위한 집단주택이었다. 집단주택은 말이 주택이지 수용소와 다름 없었다. 산곡동의 주택은 신사택과 구사택으로 구분된다. 구사택은 벽돌로, 신사택은 블록으로 지어졌다. 특이한 점은 적게는 6개 많게는 12개의 집이 하나의 기와지붕을 이고 있다는 것이다. 건축비와 공사기간을 줄이기 위한 방편인 듯하다.

“이쪽 집에서 얘기하는 말소리가 저 끝집에도 다 들렸어요. 고양이하고 쥐들이 통으로 연결된 천장에서 운동장처럼 뛰어 놀았어요” 동네 골목에서 만난 주민의 설명이다. 산곡1동사무소 옥상에 올라가서 단지를 내려다보니 마치 틀로 찍어낸 기와집들이 다닥다닥 어깨를 끼고 있다. 그렇게 그 집들은 70년의 세월을 보냈다. 좁고 긴 골목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불현듯 이른 새벽 작업복에 각반을 찬 수많은 노동자들이 ‘벤포’를 하나씩 들고 군수공장으로 향하는 모습이 오버랩 된다. 최근 인천시는 슬픈 역사의 한 단면을 품고 있는 이 주택단지를 등록문화재로 등재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968년 크리스마스 이브의 백마장

일제가 쫓겨난 후 미군이 들어왔다. 백마장 곳곳에는 미군 시설이 자리 잡았다. 60년대 초 현재의 현대아파트 3단지 자리에 국내에서 제일 큰 121미군후송병원이 설립되었다. 이 병원은 시설과 의료진이 좋아 당시 유력 정치인들은 물론 대통령도 치료받았다는 소문이 있다. 이 병원이 세계의 이목을 끈 적이 있다. 1968년 1월 23일 북한 원산 앞 공해상에서 미국의 푸에블로호가 북한의 초계정 4척과 미그기 2대의 위협을 받고 납치되었다. 사건발생 후 11개월이 지난 1968년 12월 23일 북한은 판문점을 통해 승무원 82명과 유해 1구를 송환했다. 승무원들은 바로 이 121병원으로 후송돼 하루 동안 묵으며 검진을 받았다. 별 녀 미군 사령관을 비롯해 한국에 주둔하는 모든 미군 병들이 사이드카와 소방차의 호위를 받으며 이곳을 방문했고 외신기자과 국내기자의 취재열기로 크리스마스 이브 하루 종일 백마장은 북새통을 이루었다.

전후방에서 다친 미군들은 헬리콥터로 날랐다. 지금의 한화아파트(조선배아링) 자리에 항공부대가 있었고 금호아파트와 한양아파트 사이 큰길 마장로에 활주로가 길게 놓였다. 하루 종일 헬리콥터와 프로펠러 경비행기들이 오르내렸다. “신나는 구경거리였죠. 초등학교 때 지금의 명신여고 언덕에 올라 여러가지 모양의 비행기를 지루한 줄 모르고 구경하곤 했습니다. 비행기 뜨는 것을 보며 미지의 세계에 대한 막연한 동경도 했습니다. 아직도 비행기 굉음이 귓가에 들리는 듯 합니다.” 백마장 토박이 정준택(53)씨는 눈앞에 방금 인화한 사진을 펼쳐보이듯 지난 풍경을 그려낸다.



① 70년 세월이 지났지만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벽돌조의 구사택 단지. 창문, 대문 등이 규격화 된 집단주택으로 10여 개의 골목에 걸쳐 있다. ② 시장 안의 백마극장. 50년대 중반에 개관돼 70년대 말까지 있었다. 지금은 동네 활인마트로 사용하고 있는데 뒤편의 롯데마트와 대비된다. ③ 백마장에서 자장면을 판 지 60년 된 중국집 화래춘. 백마장 인근에는 한때 중국인들이 밭 농사와 음식점을 경영하며 많이 거주했다. ④ 신곡1동사무소에서 내려다 본 집단주택



이태원보다 앞선 양키문화

부평에 미군과 미제물건이 들어오면서 양키문화도 함께 들어왔다. 백마장 골목에는 미군들이 출입하는 클럽이 생기며 주말이면 일대가 불야성을 이뤘다. 미군헌병들이 자주 순찰을 돌았지만 미군끼리, 미군과 한국인이 심심치 않게 싸움판을 벌이곤 했다. 가끔 기지춘 여성의 살인 사건이 신문 귀퉁이를 장식하곤 했다. 급기야 부대 인근에 미군 형무소가 생기기도 했다. 미군형무소는 70년대 중반까지 존재했고 이후 문화주택이 세워졌다. 골목마다 미군을 상대하는 양색시집들이 들어섰다. 연합병원과 모자병원이 문을 열었는데 양색시들의 보건증 발급이 중요한 업무 중 하나였다. 철마산 아래에는 혼혈아 고아들을 위한 고아원이 설립되기도 했다. 험하긴 했지만 미군 덕분에 돈은 돌았다. 구멍가게에서도 달러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백마장 경기는 좋았다. 특히 양복점과 가구점은 호황을 누렸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미군들은 값싸고 솜씨 좋은 양복을 몇벌 씩 맞춰갔으며 침대와 소파는 양색시들의 필수 구입품이었다. 양색시들의 국제

결혼과 미국 이주에 필요한 서류를 대행해주는 민간사무소들도 술술이 재미를 봤다. 시장 안에는 늘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65년 시장 입구에 문을 연 백양당 아이스케키점은 여름 한나절에 1만개 이상 아이스케키를 팔 정도였다. 백마장 인근에는 버스정류소로도 유명한 화랑농장이 들어섰다. 이 농장은 1950년대 초 상이용사들을 위해 건립했다. 거주자들을 위한 35평 대지에 18평 건평의 주택 120동 정도가 세워졌다. 일률적으로 빨간 벽돌에 파란 지붕을 얹은 집들이다. 농장으로 시작했지만 후에 간장 공장도 세워졌기 때문에 근처에 가면 간장 달이는 냄새가 진동했다. 나중에는 서울 중랑천 철거민들이 이곳으로 옮겨오는 등 또 다른 이주민들이 정착했다. 결코 사그라들 것 같지 않던 미군 경기는 70년대 들면서 한풀 꺾이기 시작했다. 미군철수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급기야 72년 12월 중순 부평 애스컴부대 한인종업원 416명은 해고 통지서를 받았다. 이후 백마장에서는 미군과 군속 그리고 양색시들의 그림자가 점점 사라졌다.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아름다워요

살다보면 나만 혼자인 듯 외롭고 힘들 때가 있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가 언제나 곁에 있으니, 훌훌 털고 힘을 내자. 그리고 기억하자. 우리의 내일은, 햇살 가득 찬란하다는 것을.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사진 홍승훈 자유사진가

imh 인천광역시정신보건센터

마음의 병, 함께 이겨요

최근 스스로 삶의 끈을 놓아버리는 사람이 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울증, 스트레스, 삶에 대한 염증은 살다보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다. 하지만 이를 잘 다스리고 극복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본인의 마음가짐과 주의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에 달려있다. 우리시는 중구정신보건센터를 시작으로 현재 옹진군을 제외한 모든 구군에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시정신보건센터를 통해 통합적인 정신보건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이들 센터는 24시간 열린 상담으로 자살을 예방하고, 정신과 진료와 상담의 문턱을 낮춰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지고 있다.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인천시자살예방센터가 남동구 구월동에 지난 4월 27일 문을 열었다. 우리시가 가천의대길병원에 위탁해 운영하는 자살예방센터는, 기존 정신보건센터에서 운영하던 자살상담 및 예방업무를 더욱 전문화하고 체계화해 별도로 설치, 운영하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살률은 10만명 당 31명, OECD 국가 중 1위로 34분에 1명 꼴로 삶을 포기한다. 또한 2009년도 인천시 자살률은 10만명 당 31.2명으로 전국 평균 31.0명보다 높은 수치다. 자살예방센터는 이렇듯 위기에 처한 이들의 상처를 보듬고 삶의 의지를 북돋아 주고 있다. 먼저 자살예방전화(1577-0199)를 통해 24시간 정신건강상담과 응급입원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한번 자살을 시도한 사람은 재시도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살시도자 사례를 관리하고 있다. 센터는 특히 청소년과 노인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과 정신건강평가 및 사후관리를 하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 정신보건사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을 충실히 실행하고 있다.



“힘들면 언제나 전화주세요”

인천시자살예방센터

상담전화 : 1577-0199

서비스 내용 : 24시간 전화상담, 응급입원 등
위기개입, 치료비 지원, 대상자 휴일·야간 모니터링

가장 소중한 건 당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바로 ‘당신’이다. 인천시자살예방센터는 자살 위기에서 벗어나 희망찬 삶을 다시 꾸릴 수 있도록 인식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먼저 자살충동에 노출되기 쉬운 농촌지역민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농약병에 자살방지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또 지난해부터 사람들이 많이 찾는 월미도에 자살예방캠페인을 열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캠페인은 상담을 비롯해 다양한 자살예방 체험으로 진행하며,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연다. 지금 주의를 돌려보자. 만약 좌절하여 아파하는 이가 있다면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자. 그리고 스스로 삶이 버겁게 느껴진다면 기억하자. ‘곁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당신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도 희망을 꿈꾼다

위암 투병 중인 노동자 서병철

1987년 6.10항쟁 당시 대한민국은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들끓는 용광로였다. 그래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억눌려 살아왔던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더 절실하고 뜨거웠다. 민주노동자, 진짜노동자 서병철(52) 씨도 민주화 운동의 한가운데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외쳤다.

서씨는 1986년 인천 영창악기에서 본격적으로 노동운동을 시작했다. 그는 87년 6월 항쟁이후 노동자 대투쟁을 이끌었고, 영창악기 내 민주노조 설립을 주도했다. 민주노조 건립이라는 쉽지 않은 싸움에서 그는 파업투쟁을 주도했고, 파업의 대가는 1년 여간 옥고로 이어졌다. 투옥과 해고를 거치면서 1992년 해고무효소송에 승소했고 다시 영창악기에 복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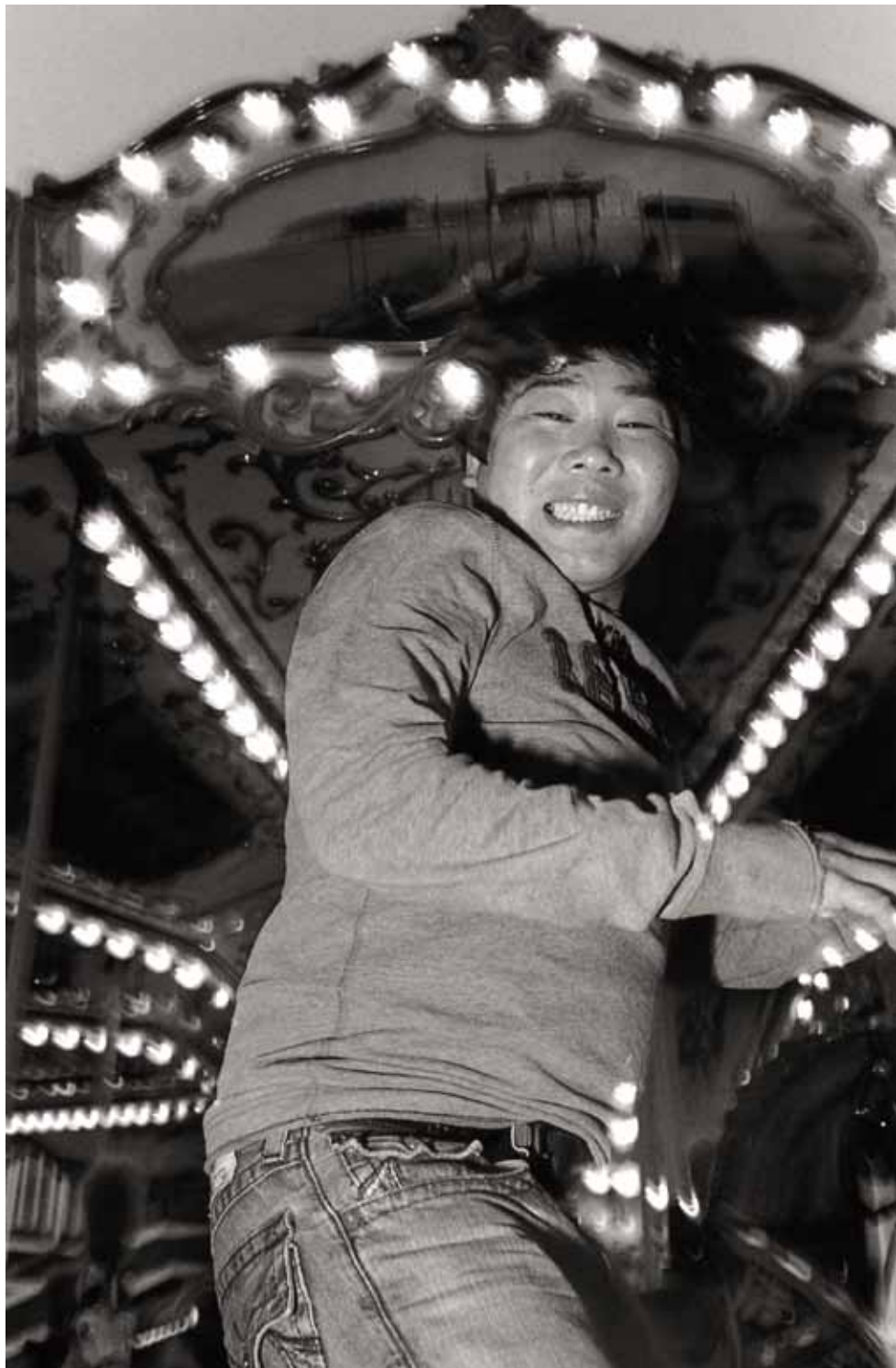
그가 노동자의 삶과 사회적 정의에 관심을 갖고 진짜 노동자로 살아 온 데는 그의 삶과 연결돼 있다. 빈농의 집안에서 초등학교 졸업이 마지막 학력인 그는 14~15세의 어린나이에 이곳저곳을 떠돌며 공장 노동자 생활을 시작했다. 일찍부터 노동자로 살면서 사회의 부당함, 못 배운 설움을 온몸으로 체득했다. 그러다 이런 삶이 제대로 사는 것인지, 노동자도 인간대접을 받는 세상에 대한 열망에 눈을 뜨게 된다. 사람사는 세상은 그가 그의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세상이기도 했다.

그는 2006년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서구 구의원에 출마했다 낙선한다. 그러던 중 굴곡진 삶과 세상과 부딪쳐 살아온 인생에 2009년 병마가 찾아왔다. 위암 3기 말. 이미 병원에선 손을 쓸 수 없는 단계였다. 서씨는 위암판정을 받은 후 11번의 방사선치료를 견뎌냈고, 재발한 뒤에도 독한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아들 둘(고1, 중1)을 키우고 있다. 병마와 싸우고 있지만 아직 어린 작은 아들은 항상 눈에 밝힌다. 그 아이가 고1이 될 때까지는 살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은 절실했다.

우리사회가 민주화를 이룩한 데는 적잖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 안락한 삶, 부귀를 쫓지 않고, 사회정의를 애쓰는 분들이다. 그런 분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부채감을 느낀다. 위암투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씨에게 뜻있는 분들의 온정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글 이용남 본지 편집위원 사진 김보섭 자유사진가





디스코처럼, 인생은 오늘도 흘러간다

월미도 디스코팡팡 DJ용

월미도 테마파크, 디스코 놀이기구가 현란한 불빛을 뿌리며 뱅글뱅글 춤춘다. 교복을 입은 앳된 소녀 그리고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 추억을 쫓아 온 중년의 아저씨, 아줌마. 모두 연신 엉덩방아를 찧고 놀라 비명을 지르면서도 웃음을 멈추지 않는다.

이들이 즐거워하는 이유는 디스코팡팡의 짜릿한 움직임 때문만은 아니다. 유행가를 타고 흐르는 DJ의 걸쭉한 입담이 그들의 배꼽을 빼고 정신을 속 빼기 때문이다. 한때 소풍을 갔다하면 인천 월미도, 놀이기구를 탔다하면 디스코팡팡이던 시절이 있었다. 최은용(37)씨는 18년 전 그때부터 지금까지 월미도를 주름잡고 있는 디스코팡팡 DJ다. 윤이 반질반질 나는 운전실의 오래된 기계와 손때 묻은 마이크가 그 세월을 고스란히 읊어내고 있다.

열여덟 소년은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놀이공원 형들로부터 ‘목소리가 좋으니 DJ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의를 받았다. 재미있을 것 같아,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마이크 앞에 섰다. 하지만 놀이기구로 손님을 모으고 타는 사람 보는 사람 모두 즐겁게 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다. 그래서 부단히 노력했다. 2평도 채 되지 않는 좁은 유리방 안에서 어떻게 말하면 사람들을 웃게 하고 마음을 사로잡을지 밤새 고심했다. 어느덧 땀 흘린 만큼 인기가 치솟았다. 전성기 때는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며 소녀팬들로부터 숱한 고백을 받았다. 현재도 케이블방송의 뮤직프로그램 ‘뮤직아일랜드 오빠, 돌려’의 MC로 활동하고, 인터넷 팬클럽이 있을 만큼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너희 몇 학년이지? 중학생? 우리나라가 선진국은 선진국이니네. 중학교만 보내면 학생을 학부형으로 만들어 놓으니.” “월미도에 혼자 오셨어요? 정장에 넥타이까지 하고, 이런 분은 딱 두 가지예요. 자취집으로 가는 중이거나 정수기를 팔러 왔거나.”

그가 아무리 거침없는 말로 타박하고 짓궂은 장난을 쳐도, 우리는 마냥 즐겁다. 그의 말 속에 표정 없는 일상을 깨우는 진한 웃음과 우리네 세상사는 이야기가 끈적하게 녹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월미도 오빠’ DJ용은 오늘도 덜커덩덜커덩 오래된 디스코를 운전한다. 우리네 인생도 그렇게 덜커덩 흔들리다 다시 제자리 또 덜커덩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사진 김보섭 자유사진가

2014 AG 경기장 건설 시작됐다 문학수영장 첫 테이프 끊어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치를 경기장의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문학수영장이 시가 신설하는 아시아경기대회 16개 경기장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달 24일 착공했다. 문학수영장은 국·시비 368억원을 들여 연면적 1만8천㎡에 지하 1층, 지상 3층, 관람석 3천6석을 갖춘 국제규격으로 짓는다. 대우건설이 대표사이며 지역건설사인 대양종합건설(주), 경화건설(주), (주)반도건설이 43% 지분으로 공동수도에 참여했다. 완공 예정일은 오는 2013년 5월이다.

문학수영장 기공식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체육관계자를 비롯해 아시아경기대회 시민 서포터즈와 지역주민 등 700여 명이 참석해 착공을 축하했다. 이날 송영길 시장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아시아의 화합을 이루는 감동적인 대회가 되도록, 남은 시간 인천시민의 열망과 의지를 모아 차질 없이 대회를 준비하자”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문학수영장 기공식을 시작으로, 이달 13일 남동구 수산동 남동경기장(체조·력비), 15일 계양구 서운동 계양경기장(배드민턴·양궁), 21일 부평구 십정동 십정경기장(테니스·스쿼시), 23일 동구 송림동 송림경기장(배구), 28일 서구 연희동 주경기장(개폐회식·육상)의 공

사를 시작한다. 이어 7월 25일 강화군 강화를 강화경기장(태권도·BMX), 9월 20일 연수구 선학동 선학경기장(하키·다목적)을 기공한다. 시가 최근 조달청에 발주 의뢰한 주경기장은 사업비 4천900억원을 들여 고정석 3만석과 가변석 3만석을 갖춘 6만석 규모로 건설한다.

시는 이와 함께 아시아경기대회에 대비해 시내에 33개, 부천·고양·성남시 등 8개 인접도시에 16개 등 총 49개 경기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인천 내 경기장 33개 가운데 10개는 개·보수해 사용하고 16개는 시가, 7개는 민간이 새로 지을 예정이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오는 2014년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16일 동안 45개국 선수와 임원 1만3천여 명이 참가해 36개 종목의 경기를 치른다.



모기는 국경이 없다

말라리아 방역물품 북한 전달

말라리아 매개충인 모기에는 국경이 없다. 우리시와 경기도가 (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주관으로 지난 5월 23일 임진각에서 말라리아 방역물품을 북한에 전달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간 최초의 남북협력사업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우리시와 경기도는 국내 말라리아 환자의 70%가 북한발 말라리아 매개 모기에 의한 감염으로 추정되므로,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인접한 우리시와 경기도가 동시 참여함으로써 방역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북으로 보낸 방역 물품은 유충구제약품 1천500kg과 개인방역물품인 모기향 9만5천팩으로 총 1억3천700만원 상당이다. 북으로 보낸 말라리아 방역물품은 인천·강화 지역과 접하고 있는 북한 황해남도 7개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남북 공동방역사업을 실시하는데 쓰여 국내 말라리아 환자 발생 확산을 막게 된다.

보건복지부 2011년 4월 자료에 의하면 강화군은 말라리아 고위험지역(인구 10만명당 100명 이상의 환자), 웅진군, 중구, 서구 등은 위험지역(인구 10만명당 10명 이상 환자), 동구는 잠재위험지역(인구 10만명당 10명 미만 환자)으로 분류되어 있을 정도로 이 지역의 피해가 심

각하다.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2008년까지 감소하다가 2009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방역물품의 북한 전달로 말라리아 고위험 지역인 인천·경기지역 주민들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의 말라리아 환자 감소와 예방에도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보낸 말라리아 방역물품은 황해남도 7개지역 주민 108만명이 수혜를 받으며 사업기간은 올 12월까지 8개월이다.

시는 본격적인 말라리아 발생 시즌이 5월말~6월초부터 임을 감안, 우선 1차로 유충구제제, 모기향 등 2종의 방역물자를 개성육로를 통하여 황해남·북도와 개성지역에 지원하고, 6월 말에는 2차분 방역물자로 신속 진단키트, 살충처리모기장, 임산부용 말라리아 예방약 등 3종의 물자를 북한에 전달할 계획이다. 향후 사업의 효과성 제고와 원활한 피드백을 위해 남북간의 정례적인 평가와 말라리아 전문가 공동연구도 고려하고 있다.

송영길 시장은 “‘남북평화와 교류협력의 전진기지 인천’ 비전 실현을 위해 취약계층의 인도적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주민 보건의료증진을 위한 말라리아 사업을 비롯한 남북협력사업을 발굴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 MICE 도시 선포식' 개최

우리는 인천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지난 5월 24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의료 MICE 도시 선포식'을 열었다. 우리는 그동안 세계 의료관광시장과 의료관련 국제회의의 규모가 해마다 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인천관광공사와 함께 '회의를 통해 더 나은 의학을 인천에서(Better Medicine By The Meeting)'라는 슬로건을 걸고, '인천 의료 MICE 캠페인'을 지난 3월부터 시행해왔다. '의료 MICE 도시 선포식'은 캠페인 행사의 일환으로 열렸으며, 송영길 시장을 비롯해 국내의료관광 전문가(병원, 학회, 협회, 유치전문대행사) 및 MICE 관련기관 단체장, 실무자가 참석했다. 선포식에서는 국제적 규모를 갖춘 인천의 MICE 인프라와 행사 유치, 개최 여건을 소개했으며, 오는 6월 설립 예정인 인천의료관광재단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MICE는 회의(Meeting), 보상관광(Incentives Tour),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의 영문 첫 글자를 결합한 단어로, 우리는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늘리기 위해 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재단에는 길병원, 인하대병원 등 20여 개 의료기관을 포함해 시, 인천관광공사, 인천국제교류센



터 등 총 30여 개 기관이 참여한다. 시는 재단을 설립하면 의료와 관련된 다양한 MICE행사를 유치해 도시마케팅의 좋은 모델을 제시하고, 해외 자매·우호도시를 중심으로 공동마케팅을 펼쳐 연간 2천여 명 수준인 인천 방문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2014년까지 2만 명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문의 : 인천관광공사 220-5071

車산업 집중 육성, FTA 효과 극대화

우리는 한국-유럽연합(EU), 한국-미국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자동차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시는 인천에 연간 50만대 규모의 완성차 업체인 한국GM과 1천500여 개 자동차 부품 업체가 있고,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통한 부품 수출과 국제 기술협력 등 자동차 산업에 유리한 입지 여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6월 중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가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문의 : 경제수도정책관실 440-3272

'FTA 자문단' 위촉

우리는 지난 5월 18일 본격적인 FTA 시대 교역에 따른 전략적 대응을 위한 'FTA 자문단'을 구성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FTA 자문단'은 FTA 전문가, 교수, 기업인, 관세사 등 각 분야별 전문가 25명으로 구성했으며, FTA관련 시 사업 추진에 대한 정책자문 및 인천시 산업별 FTA 대응에 대한 정책제언 및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우리는 FTA 활용 활성화를 위해 16개 기관·단체와 FTA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다. 이번 FTA 자문단 구성으로 더 폭 넓은 인프라를 구축해 인천시 FTA 활용 활성화 및 대응체계 구축에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7월 1일 발효하는 EU를 비롯해 FTA 시장 개방이 인천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FTA에 대한 기업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경제수도추진본부 440-4263



세계적 그린 에너지 기업, 송도에 입주

인천경제청은 지난 5월 18일 독일 현지에서 전기자동차 부품 전기모터 세계 1위 기업인 브로제(Brose)사, 태양열 활용 대체 에너지 기술 세계 1위 기업 세미크론(Semikron)사와 송도국제도시 입주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각각 체결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삼성의 송도국제도시 투자 이후 글로벌기업의 인천 경제자유구역 유치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독일의 세계적인 기업 유치를 통해 송도가 그린에너지 분야의 핵심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453-7371



송도에 삼성 바이오제약플랜트 기공식

지난 5월 오후 2시 송도국제도시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플랜트 기공식이 있었다. 기공식에는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과 송영길 시장, 이종철 인천경제청장,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 신학용 국회의원, 최지성 삼성그룹 부회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전재(40%)와 삼성에버랜드(40), 삼성물산(10%), 미국 쿼타일즈사(10%)의 합작법인으로 2020년까지 2조1천억원을 들여 송도 5공구 27만4천㎡ 부지에 바이오 의약품 위탁생산(CMO)과 신약 제조·연구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문의 : 경제수도추진본부 453-7362

홈페이지 마일리지 사용 범위 확대

우리는 시민들의 온라인 시청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의 마일리지 포인트 사용 범위를 확대한다. 시는 그동안 홈페이지 적립 마일리지 포인트를 휴대전화 문자전송에만 사용할 수 있던 것을 교통카드 충전과 사회 기부에 사용할 수 있게 변경했다. 마일리지 포인트가 1천점 이상인 경우 1점당 1원으로 교통카드를 충전할 수 있고, 100점 이상인 경우 1점당 1원으로 기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 홈페이지 마일리지의 사용 분야를 확대함으로써 시청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기부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정보화통계담당관실 440-2344

저소득층 자립 돕는 '사회적 은행' 설립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한 저소득층 창업자에게 무보증으로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사회적 은행'이 설립된다. '사회적 은행'은 창업 자금이 필요한 다문화 가정과 새터민, 차상위 계층 등에게 담보나 보증인 없이 대출해 주는 공공금융 사업으로, 민간 주도의 사단법인으로 설립 운영된다. 시는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앞서 6월 1일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인천 사회적 은행 설립 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6월 말 법인을 설립할 방침이다.

문의 : 경제수도정책관실 440-3264

민간단체와 공정무역 협약 체결

우리는 지난 5월 24일 아이쿰인천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천미래광장 등 2개 민간단체와 공정무역(Fair Trade)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공정무역은 저개발국 생산자에게 정당한 가격을 주고 구매한 제품을 소비자가 구매하게 하는 윤리적 소비운동으로, 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해당 단체들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들 단체는 필리핀(설탕), 네팔(커피), 파키스탄(올리브유) 등지에서 구매한 제품을 인천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예정이다. 시는 공정무역 홍보대사로 이날 배우 손태영씨를 위촉한데 이어 26일에는 성우 배한성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문의 : 투자유치담당관실 440-3282

새주소 확정 고지

우리는 현행 지번 대신 도로 이름과 건물번호를 사용하는 새주소(도로명 주소)를 확정하기 위해 건물 소유자와 점유자(법인포함) 등 약 198만1천건을 대상으로 방문 고지하고 있다. 도로명주소 고지절차는 통·이장 등이 최소 2회 이상 고지 대상자를 방문하며, 2회 이상 고지문을 전달 받지 못할 경우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고지문을 전달하지 못한 경우 공시송달을 통해 고지절차를 마무리한다. 도로명주소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도로명주소' 또는 새주소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도시계획국 440-4591



UNESCAP 동북아사무소 송도 개소 1주년 기념식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동북아지역사무소는 지난 5월 17일 송도국제도시에서 개소 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1947년 설립한 ESCAP은 유엔의 지역위원회 중 하나로 아·태 지역 62개 회원국으로 구성해 녹색성장, 재난위험관리, 식량안보, 빈곤퇴치 등 다양한 지역협력사업을 펼치고 있다.

동북아사무소는 한국, 북한, 러시아, 몽골, 일본, 중국의 국가간 협력을 촉진하고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문의 : 국제협력관실 440-3254

‘제10회 세계한인언론인대회’ 개최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인 언론인들이 모여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제10회 세계한인언론인대회가 지난 5월 16일 오후 인천 하버파크호텔에서 개막했다.

세계한인언론인연합회(세계한언)와 연합뉴스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19개국, 35개 도시의 재외동포 언론인 50여 명이 참석, ‘새로운 10년 글로벌 한민족의 중심, 세계한언’이라는 주제로 4박5일 동안 자체 활동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비전 설정을 모색했다.

문의 : 대변인실 440-3092

일자리 Job Go! 희망 Job Go!

‘2011 인천 청년 일자리박람회’가 지난 5월 24일 인천시청 대회의실과 1층 중앙홀에서 열렸다.

이번 박람회는 2011년 1분기 기준 청년 실업자가 40만이 넘는 등 20~30대의 실업이 갈수록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지역의 청년실업자에게 취업기회를, 지역의 구인 기업에는 우수 인재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일자리 위주의 박람회로 진행됐다.

문의 : 경제수도추진본부 440-4244

리스·렌트 차량등록 40% 유치 계획

우리시는 열악한 재정을 극복하기 위해 세수확보의 일환으로 전국 리스회사와 렌트회사의 차량 등록 업무를 유치해 약 1천억원 이상의 세수 증대를 올릴 예정이다.

우리시는 취득세·자동차세를 거둘 수 있는 자동차 리스·렌트 업체의 자동차 등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리고 그 첫 성과로 지난 16일 (주)KT렌탈과 ‘리스 및 렌트 차량 등록 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협약에 따라 자동차 등록에 따른 채권매입 요율을 전국 최저 수준으로 낮추고, 리스·렌트차량 유치에 따른 취득·자동차세에 대한 장려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 : 자치행정국 440-2542

화물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확대

우리시는 지난 5월 9일부터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을 1톤 이하의 용달화물자동차에서 1.5톤 이하의 개별 화물자동차까지 확대했다.

이는 이번엔 전면 개정 공포된 ‘시 화물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조례에는 그 동안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차 운송사업자에게만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해줬던 것을 최대 적재량이 1.5t 이하 화물차를 소유한 개별화물차 운송사업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조례 개정으로 인해 추가로 수혜를 입게 될 화물자동차는 기존 5천892대에서 6천676대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문의 : 항만공항해양국 440-4843

‘찾아주세요! 알려주세요! 소외된 우리 이웃’

우리시는 오는 6월 15일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보호를 위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찾아주세요! 알려주세요! 소외된 우리 이웃’이라는 주제로 진행하는 이번 일제조사는 안타까운 사정으로 복지지원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나 국가나 사회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행정기관의 직접조사와 시민들의 신고에 의한 조사로 진행된다.

신고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번)와 시청 사회복지봉사과(☎ 440-2922), 그리고 구·군 주민생활지원과로 하면 된다.

문의 : 보건복지국 440-2921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조례제정 공청회

인천시의회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한구)는 지난 5월 12일(목)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인천광역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조례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에 대해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공동집행위원장이며 인천광역시친환경무상급식지원추진단추진위원인 박인숙 위원장이 주제발표로 “인천광역시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청원 조례(안)에 대해 소개했다.

토론에는 ‘인천광역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 제정(안)’ 조례에 대한 필요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 울산 북구 급식센터의 운영 현황, 급식센터의 설립에 대한 견해 등을 놓고 토론과 일반 시민의 폭 넓은 의견이 개진됐다.

인하대생들 의정아카데미 참여

인천시의회는 차세대 정치지도자를 꿈꾸는 대학생들에게 지방의회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지방의회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학생 의정아카데미를 열띤 분위기 속에 개최했다.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정일섭 교수의 지도로, 인하대학교 학생 80여 명이 4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광역시의회를 방문하여 의회 및 시정 홍보 영상 시청, 의원과의 대화, 대학교수 특강, 상임위 및 본회의 시연 등 체험 위주의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 결산검사위원 참여

인천시의회는 지난달 9일(월) 오전 11시 의회 접견실에서 201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장 수여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결산검사위원은 시의원 3명, 회계사, 세무사 등 일반인 7명으로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위촉장 수여 후 감사위원 10명은 위원간 논의를 통하여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구재용위원을 선출하고, 아울러 대표위원 주재하에 결산검사 일정 및 위원별 업무분장을 하고, 결산검사 주요 착안사항, 향후 결산검사 방향 등을 논의했다.

결산검사기간은 5월 11일 ~30일까지로 20일간이다.

이 기간동안 위원들은 인천시 및 교육청의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공정성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행정수혜자인 시민의 신뢰성을 제고했다.

최종적으로 감사종료 후 10일 이내에 감사의견서를 단체장에게 제출하고, 단체장은 세입·세출결산서에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6월 30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의원 매니페스토 서약

인천시의회는 지난달 25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의원 3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공동으로 매니페스토 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서약식은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전국 시·도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가진 행사로, 시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시의 세금 낭비를 철저히 감시하고 반부패·청렴의원이 될 것을 다짐했다.

이어 지방의원으로서 공정한 직무와 청렴의무를 이행하고 공약사항을 성실히 실천할 것을 약속한 뒤 매니페스토실천본부로부터 ‘약속카드’를 받았다.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위촉

인천시의회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요시책 등에 대한 정책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고자 할 때, 이를 지원 심의하기 위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위촉식을 지난 5월 3일 가졌다.

심의위원은 당연직 3명과 민간인 위촉직 5명으로, 이날 위촉한 민간인 위원 5명은 노명구(변호사), 이기우(인하대 교수), 정세국(경제학 박사), 박창화(인천대 교수), 한상언(전직 교장)이다.

향후 의원들이 연구단체를 구성하고자 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연구단체의 적격여부, 연구주체의 적합여부 및 연구단체의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특별위원회 |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위

안전한 급식시스템 구축이 목표



제6대 시의회 구성부터 사회적으로 반향을 일으켰던 친환경무상급식. 친환경무상급식은 미래의 동량인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작년 10월 구성된 인천시의회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위(위원장 이한구)는 학생들에게 좋은 먹을거리,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규정한다. 급식도 의무교육처럼 보편적 복지의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 특위는 위원 10명으로 구성되어 학생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제도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특위 구성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특위는 급식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남동초등학교 급식현장을 방문해 학생들의 배식장면, 실제 식재료 등을 살펴보고, 제주도 전국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대회에 참가해 제주친환경농업학교 방문, 친환경 현장견학, 친환경무상급식 추진현황 등을 청취하고 현장을 현지시찰을 한 바 있다. 현재 인천은 초등학교 3~6학년까지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지만, 하반기부터는 1~2학년들에게도 친환경무상급식을 제공한다. 특위는 안정적인 무상급식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는 다른지역 사례와 내용을 좀더 정비해 오는 9월 상정할 예정이다. 9월 조례가 제정되면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모든 일을 전담하는 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된다. 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과 연관된

관계자들이 모여 아이들에게 제공할 최상의 재료, 최고의 급식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장이 된다. 학교급식시스템의 획기적인 전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인천학교 급식지원센터가 생기면 좋은 농수산물을 안정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공급자도 판매 루트가 안정적으로 확보함에 따라 생산자도, 공급자도 서로 윈윈하는 시스템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는 1천4명의 시민들로부터 청원이 들어와 특위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위는 오는 7월 조례안을 최종 검토, 완료하고 9월 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제정(안)을 의회에 상정, 공포한 뒤 10월 활동을 종료하게 된다.



인터뷰 _ 이한구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위 위원장

학교급식 국가가 책임질 일

“학교 급식은 국가가 책임지고, 부담해야 할 정책입니다. 급식도 의무교육의 취지를 살려 보편적 복지로 나가야 합니다.” 이한구 친환경무상급식특위 위원장(46, 계양제4선거구)은 평소 먹을거리와 학교급식에 관심이 많았다. 의회 입성 전에는 녹색운동과 환경 분야에서 활동해온 환경맨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이 위원장에게 친환경무상급식특위 위원장의 자리는 적임자나 다름없다. 이 위원장은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이나 인천지역 우수농산물을 제공을 목표로하고 안정적인 급식시스템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제정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 위원장은 친환경무상급식 특위 활동의 성과 중 하나로 6월부터 친환경우수농산물 차액 지원제도가 없어진다고 한다. 친환경무상급식을 하는 초등학교의 경우 학부모가 농산물의 25%를 부담해왔는데 6월부터 면제되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특위가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친환경무상급식이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정착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또 안정적인 급식시스템 마련을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해 오는 9월 결실을 보는 것을 최고의 결과물로 꼽았다.



클릭! 시의원 _ 노현경 의원

인천교육 발전에 힘 쏟는 ‘우먼파워’

노현경 의원(49)의 의회 사무실은 관련 실국으로부터 요청해 받은 두툼한 자료들로 가득차 있다. 교육위, 기획행정위, 의회운영위, 친환경무상급식특위, 조례특위 등 무려 5개 상임위·특위 활동을 맹렬히 하고 있기에 연구하고 분석하며 체크해야 할 자료들이다. 이미 본 문서에는 포스트잇이 빼곡히 붙어 있어 열공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시 의원으로 전문성을 갖고 시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선 공부하고 연구하는 길 뿐이기에 몸이 열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뻘뻘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노의원은 인천교육을 꿰뚫고 있는 현장활동 전문가다. 제5대 교육위원을 역임했고, 교육활동에 대한 전문적 영역을 인정받아 의회에 입성했다. 제6대 시의원이 되자마자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6개월간 교육의원 역할에 올인했고, 올 1월부터 기획행정위원회도 맡아 두 개 상임위 활동에 전력하고 있다. 기획행정위원을 겸임한 것은 폭넓게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시 집행부의 관심과 열정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노의원은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무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 그러기에 40년 할 일을 4년에 한다는 생각으로 빈틈없이 꼼꼼하게 시 정책을 챙기며 시민의 대변자로서 자신의 열정과 힘을 쏟고 있다. 인천전체가 내 지역구라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는 노의원은 하반기에도 시 집행부를 견제하는 일에 총싹할 것이지만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반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빛의 속도’ 체송인 오류동서 우편물 교환

우리나라에서 근대식 우편제도의 탄생 시점은 고종 21년(1884) 4월 22일(이하 전 양력임) 병조참판 홍영식을 우정총판(郵政總辦)에 임명하면서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승정원일기에는 홍영식을 우정국 총판에 임명하면서 ‘1883년 개항을 전후해 각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한 이래 국제 관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우정총국(郵政總局)을 설립하여 각국과의 우편 관리는 물론 국내 우편 사업도 점차 확장토록 하기 위해서’라고 기록하고 있다.

글 김윤식 시인 사진 홍승훈 자유사진가

약 90년 전에 실제 사용한 우체통

인천우체사 관할구역 ‘제물포항과 인천읍내’

우정총국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로 분국이 인천에 세워졌다. 초대 인천분국장이 바로 월남(月南) 이상재 선생이다. 그는 1867년 과거에 낙방하고 박정양의 집에서 식객 노릇을 하다가, 1881년 박정양이 일본 시찰을 갈 때 그의 수행원이 되었는데 그때 박정양과 동행한 홍영식, 김옥균 등을 알게 되었고, 결국 홍영식의 권유로 우정국 주사가 되어 인천에 근무하기에 이른 것이다. 월남은 갑신정변 후 낙향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우정총국은 장정(章程)도 정하고 임원도 선정하여 1884년 11월 18일 업무를 개시했다. 그러나 당시 개화파 김옥균과 박영효 등이 12월 4일,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 자리에서 갑신정변을 일으키면서 크게 놀란 고종은 전교를 내려 업무 시작 불과 20일밖에 되지 않은 우정국을 아예 폐지시켜 버리고 만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나마 싹이 트던 근대식 우편 사업은 중단되고 마는 것이다.

그 후 1895년에 이르러서야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우편 업무가 재개된다. 그해 7월 22일 한성과 인천에 다시 우체사(郵遞司)가 설치되는데, 농상공부에 통신, 선박을 관

장하는 통신국을 설치하고 전국 주요 도시에 우체사 개설을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인천우체사는 외리(경동)에 있는 해운회사 이운사(利運社) 건물 안에 두었다가 1898년경 내리(내동)로 옮겼다. 직원은 사장 김장한 외에 주사 2인과 몇 명의 집배원이 있었다고 한다.

인천우체사의 업무 관할 구역은 애초 ‘제물포항내와 인천읍내’로 한정되었다. 후에 우체 구역을 구내와 구외로 나누었는데, 구내는 우체사로부터 10리 이내, 구외는 20리 이내였다. 인천우체사는 다시 10년 뒤인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제가 강제로 한일통신합동운영협정을 체결하고 자기네가 운영하던 인천우편국에 흡수하면서 사라지고 만다.

우체사가 설치될 때 우편배달에 관한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었다. 체송인(우체부)은 매일 1회 각각의 우체사에서 오전 9시에 출발하여 매시 10리(약 4km)의 속도로 중간 지점인 오류동에 도착해서 30분 사이에 서로 우편물을 교환하여 다시 출발지로 돌아가고 다시 각각의 우체사에서 오후 5시 30분까지 도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구한말 우체부



구한말 관공서나 변화가에 설치된 우편함(목재)

최초 발행은 5종의 무늬우표

우체사의 개국과 함께 우표도 함께 발매되기 시작했는데, 그 판매고가 우편물에 비해 훨씬 많았다. 그 이유는 외국인들이 우표 수집을 위해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1909년 4월 12일자 통감부 문서에도 ‘미국인 여성 메이어의 한국 우표 3만여 매 불법 소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종류는 상세히 알 수 없으나 선황제(先皇帝, 고종) 시절 발행된 것과 지난해 일본 황태자의 도한(渡韓) 기념우표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다. 원래 서양 부인들은 이런 종류의 우표를 환영하기 때문에 이를 본국에 가지고 돌아가서 매각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을 야심이 분명한 것 같다.’는 내용이 보인다.

국내에서도 고우표(古郵票)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 같다. 1900년 11월 1일자 황성신문에 고우표 매입 광고가 보인다. 당시 어투 그대로 옮겨 본다.

“폐점에서 좌개한 대한제국우표 이왕 우표 휴지된 것을 비싸게 살 터이니 가지고 계신 제군은 속히 폐점으로 가져 오시오. 혹 봉투에 붙인 것이라도 있거든 떼서 가져 오시오. 오 분, 십 분, 이십오 분, 오십 분. 또 좌개 ‘문’자 있는 것은 갑신년에 발간한 것인데 혹 있는 것은 증가로 살 터이니 불론 다소하고 방매하오. 오 문, 십 문, 이십오 문, 오십 문, 백문. 한성 니현 구옥상전.”

최초의 우표는 1884년 우편 사업을 시작할 때 발행되었는데 5종의 무늬우표였다. 그러나 이 우표는 갑신정변으로 수명이 끝나버렸고, 1895년 우체사가 설치되며 발행된 우표는 중앙에 태극무늬가 있는 ‘태극우표’였다. 이 우표는 일제 통감부에 의해 1905년 6월 30일에 발매 정지되었다.

국제 우편 사무는 1900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 서울, 인천, 목포, 부산, 원산, 진남포에 외국 우편교환국이 설치되었다. 이처럼 우편에 관해서도 인천이 역시 선구적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지면 관계상 부득이 여기서 줄이거니와 근대 우편제도 시행 당시 있었던 이야기들은 다른 지면을 기약한다.



문위우표(한국 최초의 우표). 1884년 11월 18일 발행

별난 역사, 별난 물건 시리즈에 게재된 다양한 우표 관련 물건의 실제 모습은 중구 차이나타운에 있는 <인천근대 박물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엔 희귀한 근대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관람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료는 성인 2천원, 학생 1천원. 문의 764-1988

책 읽기 바이러스 솔솔 퍼져라

책읽는 시민이 세상을 리드한다. 우리시의 책 읽기 사업이 시간을 더 할수록 시민의 호응을 얻고 있다. 시민과 한결 더 가까운 곳에서 친근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 구군에서는 시민 독서생활화를 위해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북카페를 설치, 대학도서관 개방 등으로 시민들이 책을 쉽게 접하고 읽을 수 있는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동구는 전 구민 독서운동을 전개한다. 올 12월에 동구 구립도서관이 건립되고, 송현주공아파트에 작은도서관을 세운다. 송현근린공원 적송원에 숲속도서관도 설치한다. 전 주민의 독서운동 전개를 위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축제에 아동백일장, 북카페를 홍보하고, 연중으로 배다리 헌책방거리에 '시낭송회'를 열어 문학의 향기를 널리 퍼트린다.

서구는 주민센터, 거점별 대형마트 등에 무인 독서코너를 설치하고, 이동도서관을 운영한다. 순회차량을 이용한 이동도서관은 5개노선 17개 아파트를 순회하면서 주민들에게 책 나눔 서비스를 한다.

남구는 책읽기 확산을 위해 '독서문화진흥조례'를 제정하고,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를 위한 독서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아동센터에 도서 재 기증사업을 전개한다. 계양구는 한도시 한 책읽기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구축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 '올해 인천의 책' 콘텐츠를 구성하고 인천시민을 중심으로 팔로우를 구축한다. 작전도서관 내에 숲속도서관을 만들고, 전국 최초 스마트폰 QR코드를 활용한 '한도시 한책읽기' 콘텐츠를 개발한다.

옹진군은 부족한 독서환경 조성을 위해 도서관과 주민

편의시설을 연계한 우리마을 쉼터에 간이도서관을 운영한다. 농어촌 실정에 맞게 영흥과 대청에 농어촌 공공도서관을 만들고 독서기회가 적은 농어촌 주민들에게 책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연수구는 유치원 원아들을 대상으로 책읽어주기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연수구 공공도서관은 도서관 활성화 차원에서 권역별 특성화된 도서관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민들의 지식서비스 공간으로 자리매김한다. 남동구는 구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도록 2012년까지 4개의 도서관을 건립한다. 간석1동, 남촌도림동, 만수2동 지역내 홈플러스, 대형병원 등 시민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북카페를 설치, 구민과 소통하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활용한다. 중구는 문화예술도시 위상에 걸맞게 올 11월에 중구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한다. 만3세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드림북 배달부 프로그램을 운영, 주1회 가정을 방문해 맞춤형 도서를 대여하는 특화사업을 벌인다.

부평구는 공공도서관 6곳에 통합대출 서비스를 구축,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책을 편하게 빌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 오는 9월엔 '책읽는 도시, 부평 비전 선포식'을 갖고 전 구민이 책 읽기에 동참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을 만든다.

이달의 서평

실행이 답이다

이민규 | 더난출판사 | 2011

실행력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행'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책이다. 생각을 성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결심 단계→실천 단계→유지 단계' 3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말하고, 이를 3장으로 구성해 각 단계별로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화내지 않는 연습

코이케 류스노케 | 21세기북스 | 2011

화를 내려놓는 순간 마음에 행복이 찾아온다. 이 책은 〈번뇌 리셋〉, 〈생각버리기 연습〉 등의 많은 베스트셀러를 낸 코이케 류스노케 스님의 저서로, 자꾸만 화를 내게 되는 마음의 구조를 설명하고 행복을 파괴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려 평온해지는 법을 제시한다.

바보 빅터

호아킴 데 포사다 | 한국경제신문사 | 2011

자신의 진가를 모르고 자신감 없이 살아야 했던 IQ173의 천재 빅터와 아름다운 여성 로라의 감동적인 이야기. 17년 동안 바보로 살았던 IQ173의 천재 빅터와 자신을 못난이로 여기며 살아 온 아름다운 여성 로라가 삶에서 잃어버린 진실을 되찾아 가는 여정을 그려냈다.

주제별 추천도서

자료제공 인천시 미추홀도서관 440-6655

서명	지은이	출판사	책 소개
영국의 독서교육	이지성	문학동네	영국 교육의 키워드 '책'
생각의 진화	김용관	국일출판사	생각의 진화로 역사를 만든 위인들 이야기!
덕과 지식,그리고 행복	윌리엄 J. 프라이어	서광사	고대 희랍 윤리학에 입문하는 책
더 나은 세계화를 말하다	대니 로드릭	북돋음	세계화 시대 경제학이 나아갈 방향 모색
중국소수 민족의 눈물	장샤오쑹 외	안티쿠스	그들만의 삶과 문화를 지키는 중국 소수민
오늘의 수학	이광연	동아시아	수학으로 바라본 경이로운 내일의 과학
칭찬과 꾸중의 힘	상진아	랜덤하우스	아이를 변화시키는 자녀 교육 노하우!
디자인씨	김은산	양철북	'디자인'으로 세상을 읽는다
거장처럼 써라	윌리엄 케인	이론과 실천	모방이 창조를 낳는다
랩소디 인 베를린	구효서	뿔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노래!
삼국유사 글쓰기 감각	고운기	현암사	현대 감각 '스토리텔링 삼국유사'
벽광 나치오	안대희	휴머니스트	조선의 '벽광나치오'들!

〈이달의 인천작가〉

구효서



1958년 9월 25일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에서 출생해 배재고등학교와 목원대학교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했다. 1987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마디〉가 당선되어 문단에 등단하였다. 토속적 정서, 현대적 도회적 정서, 해독 불가능한 관념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의 작품을 만들었다. 1994년 〈강릉파가 없는 마을〉로 한국일보문학상을 받았으며 1995년 출간한 〈낮선 여름〉은 홍상수 감독에 의해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로 영화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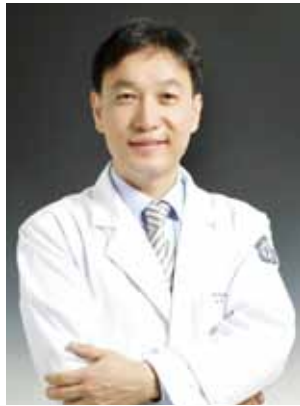
최근 저서로는 〈악당 임궽정〉(2000), 〈노을〉(2003), 〈비밀의 문〉(2004), 〈랩소디 인 베를린〉(2010) 등이 있으며, 동화에 〈부향소녀〉(2002)가 있다.

랩소디 인 베를린 구효서 | 뿔 | 2010



두 천재 음악가의 삶을 그린 구효서의 장편소설 〈랩소디 인 베를린〉. 18세기 말 독일 바이마르와 평양, 21세기 베를린과 일본과 한국을 잇는 배경 속에서 두 조선 음악가의 불꽃 같은 삶을 그리고 있다.

일본 여인 하나코는 40여 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첫사랑 겐타로(김상호)의 행적을 쫓아 독일로 향한다. 재일교포 2세이자 재독음악가였던 겐타로가 독일에서 스스로 죽음을 택하면서 '평생 가달고자 했던 곳, 하나코.'라는 메모 때문이다. 김상호의 죽음 뒤에 얹힌 가슴 아픈 비밀들이 드러나고, 바로크 시대 풀무꾼에서 천재적인 음악가로 성장한 힌터마이어의 혈통과 1944년 한 유대인 수용소에서 탄생한 '이디시어 랩소디'가 그와 무관하지 않음이 밝혀지는데….



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벌써 6월, 새해 초 운동을 열심히 하고 담배를 끊었다던 결심이 아득히 사라졌는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마음을 다잡아 보자. 서랍 속에 고이 보관해 둔 건강검진표를 갖고 병원에 방문해 건강검진을 받아보는 것은 어떤가.

글 강영진 인천광역시의료원 가정의학과장

건강검진을 받는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다. 암을 포함해 모든 병을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높아진다. 둘째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발견해 예방하는 것이다. 비만, 음주, 흡연, 운동 부족, 스트레스 그리고 생명과 직결되는 뇌졸중, 암, 심혈관계 질환 등 대부분은 생활습관과 관련이 있다. 건강검진으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생활습관을 바르게 하는 계기로 삼자.

건강검진 결과를 받으면 담당의사의 권고사항만 대충 읽고 결과지를 버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결과지에는 앞으로 발생할 질병을 예측해 하는 여러 자료가 담겨 있다. 잘 보관하면 다음 건강검진을 받을 때의 수치와 비교할 수 있고, 생활습관을 바르게 하도록 도움을 주는 자료로 쓸 수 있다. 질환이 생겼을 때 주치의에게 결과지를 보여 주고 상담할 수도 있다.

종합검진을 받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면, 나중에 병이 진행해 생길 수 있는 더 큰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더군다나 국민건강보험에서 1~2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 암 검진, 일반 검진은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놓치지 말고 꼭 검사를 받자.

※ 10년 더 오래 사는 생활습관

- ① 규칙적인 식사와 소식은 장수의 비결이다.
- ② 금연과 절주는 필수다.
- ③ 시간 나는 대로 많이 걷자.
- ④ 정해진 시간에 충분히 수면을 취한다.
- 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인천에서 소박한 삶 즐기다

글 스벤 뉴어트(쉐라톤 인천 호텔 총주방장)



나는 쉐라톤 인천호텔이 2년 6개월 전에 문을 열면서 인천으로 왔다. 인천에 와서 빠르게 발전하는 도시라는 인상을 받았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불어 닥친 침체에도 불구하고 송도는 변화를 거듭하고 있음을 여기저기서 느낄 수 있었다. 쇼핑센터와 서구적인 여가시설은 곧 서울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인천은 잘 개발되어 있고 청결하며 안전한 도시여서 밤늦게 다녀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지하철과 버스는 이용하기 편리하고 시민들은 친절하며 적극적인 도움을 준다.

시간이 나거나 쉬는 시간에는 인천대공원과 송도 센트럴파크의 아름다운 자연의 품에서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때로는 소래 포구에 가서 배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신선한 해산물을 사고파는 것을 구경한 후 차이나타운을 산책하곤 한다. 그리고 친구들과 자주 바비큐나 치킨을 먹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낸다. 나는 한국음식 중에 갈비찜과 불고기를 가장 좋아한다.

여름에는 도시를 벗어나 공항 근처 해변에서 바닷바람을 쐬며 인천의 자연을 눈에 담아 둔다. 이색적인 풍경이 마음에 든다. 한국 친구들이 동해안을 가보라고 추천하여 언젠가 꼭 가보고 싶다. 공항이 가까워서 부산이나 제주도처럼 한국의 다른 곳을 여행하기가 편한 것도 내가 인천을 사랑하는 이유다. 인천에서의 삶이 나는 매우 좋다.

삼성초교 계산공고서 제빵체험 학습

시골 학교 초등생 전원이 공업고등학교와 연계해 제빵체험을 했다. 강화 삼성초교(교장 정중숙)는 지난 5월 21일 계산공고(교장 정영복)에서 재학생 35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로 지도의 일환으로 제빵체험학습을 실시했다. 이날 학생들은 특성화 고교인 계산공고 제빵실을 찾아 빵(파운드 케이크)의 반죽에서 오븐 굽기, 선별, 포장 등 제빵 전 과정을 체험했다. 특히 이번 제빵 체험에는 시골 학교에서 증가하는 다문화 가정 학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참여해 학교생활과 진로지도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 문 의 : 010-6296-6961

자녀집중력 향상 부모 특강

인천광역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자기주도적 학습의 힘, 자녀의 집중력을 높이고자 하는 부모들에게 칭찬과 격려로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자녀와의 대화법 부모특강을 실시한다.

- 강 사 : 이명경 교수(한국집중력센터 소장)
- 일 시 : 6월 14일(화) 오전 10시~12시
- 장 소 : 인천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 대 상 :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 및 일반인(선착순 접수)
- 참가비 : 무료
- 문 의 : 721-2300, 2314

한잔의 역사, 차 · 커피

인천시립박물관은 <박물관대학>의 2011년도 상반기과정을 개설, 차와 커피를 둘러싼 흥미로운 역사와 다양한 문화현상을 6월 24일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한다.

- 기 간 : 5월 6일~6월 24일(8강, 매주 금요일) 오후 2시~4시
- 주 제 : 한 잔의 역사, 차 · 커피, 술-일상다茶 반사
- 대 상 : 일반시민
- 문 의 : 440-6734

월미도 라스트 개그콘서트

월미테마파크에서는 개그콘서트의 주요 출연진이 나와 재미를 선사하는 특별무대를 마련한다.

- 일 시 : 10월 30일까지(매주 주말, 공휴일) / 월미테마파크 3층
- 시 간 : 오후 1시, 3시, 5시 / 80분 공연
- 공 연 : 비눗방울로 만드는 신기한 버블쇼, G4이승주의 라스트개그파더, 개미핥기 개그 매직쇼, 윤택&유민상의 개그배틀
- 문 의 : 070-8801-8525, my-land.co.kr

2011 박물관 시민강좌

인천시립박물관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돕기 위해 <박물관 시민강좌>를 운영한다. 2011년 박물관 시민강좌는 'In & Out - 우리 역사 속 경계를 넘나든 사람들'을 주제로 한반도를 나가고 들어 온 사람들이 겪은 다른 세상의 풍속, 견문, 체험 등 우리 역사 속 교류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 기 간 : 2월 ~12월, 매주 첫 번째 토요일, 오후 2시~5시
- 대 상 : 일반시민
- 문 의 : 440-6734

2011 박물관 시민강좌 강좌일정

날짜	강의주제
6월 4일	쌍화점의 회화아비 내 손목 잡았네 -고려시대 대외교류 알기-
7월 2일	홍여장수 문순득의 국제표류기
8월 6일	조선사람, 왜국의 포로가 되다
9월 3일	지식의 실크로드를 넘은 사람들, 연행사
10월 1일	하와이 사진신부의 결혼이야기
11월 5일	오페르트 조선원정대, 조선의 문을 열어라!
12월 3일	엘리자베스 키스, 100년 전 조선을 그리다

‘당신도 바리스타’ 참여자 모집

송의종합사회복지관은 바리스타 양성과정 참여자를 모집한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 일 시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30분~5시 30분
- 교육기간: 4주 과정
- 모집인원: 8명(선착순)
- 수 강 료: 5만원(재료비 별도/약 2만원 내외)
- 교육내용: 핸드드립(커피추출의 원리와 커피, 향미테스트, 각종 핸드드립법)
- 신청방법: 전화 및 방문접수(수강료 완납 시 접수완료)
- 문 의 : 888-6222~4



‘갯벌문화관&다레원’ 제2기 수강생 모집

가천문화재단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은 미추홀공원 내에 갯벌문화관&다레원 제 2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 모집기간 : 6월 6일~10일, 오전 10시~오후 5시
- 대 상 : 만 18세 이상 성인(개강일 기준)
- 수 강 료 : 무료
- 모집방법 : 홈페이지 접수(선착순) 가천문화재단 홈페이지 우측 하단 ‘강좌신청하기’
- 기 간 : 6월 20일~9월 8일(12주간) / 주 1회 2시간씩
- 문 의 : 833-2600
- 교육과정 및 모집인원

요일	오전/오후	강좌명	수강정원
월	오전	생활다레	15
		기초 중국어	15
		이미지 메이크업(특강)	20
화	오전	응용다레와 규방다레	16
		도예 II	18
		자전거와 생활(특강)	20
수	오전	대금과 단소	15
		서예와 사군자	25
		수지침(문화학교)	30
목	오전	한지 공예	25
		천연비누와 천연화장품(특강)	30
		디지털 사진촬영(문화학교)	30
금	오전	서예	25
		동화 구연(특강)	15
		한국화	15
		도예 I	16

여름학기 평생교육 수강생 모집

동구청소년수련관은 2011년 여름학기 평생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 알찬 교육을 바라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바란다.

- 접수 기간 : 신규수강생 - 5월 11일~선착순 마감
- 접수시간 : 화~토, 오전 9시~오후 6시
- 강 좌 :
 - 유아, 유치 - 발레, 동화구연, 미술, 가베, 영어뮤지컬 등
 - 초등 · 청소년 - 발레, 동화구연, 미술, 하모니카 등
- 성 인 : 요가, 풍선아트, POP, 정보화 기초반, 실무반 등
- 무 료 : 성인 문해 초급, 중급
- 문 의 : 777-7942

인천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확충 · 이전 안내

청소년 상담지원센터가 지난달 17일 시설을 확충 · 이전하고 연중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고민 있는 청소년들은 언제든지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 (Help Call 청소년전화 1388)

- 문 의 : 432-0717

6월 문화강좌

미추홀도서관은 신나는 방학을 앞두고 다양한 전시, 공연, 강좌를 마련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 ‘러시아를 걷다’
 - 운영기간 : 5월 7일(토)~7월 23일(토)
 - 매주 토 / 오후 2시~3시 30분 (총12회)
 - 대 상 : 러시아 및 인문학에 관심 있는 인천시민 50명
 - 내 용 : 러시아 정치, 예술, 문학, 역사 분야별 전문가 강의와 영화 상영을 통해 러시아 제대로 알기
 - 접수마감 : 강의 시작 전일까지(회차별 접수)
 - 접수방법 : 인터넷, 전화, 방문
- 국내문학상 수상도서 전시회
 - 일 시 : 6월 20일(월)~7월 17일(일)
 - 대 상 : 전체
 - 내 용 : 이상문학상, 동인문학상, 황순원문학상 등 도서관 소장자료 중 국내문학상 수상도서 전시
- 이야기꾼의 책공연
 - 일 시 : 6월 25일(토) 오후 2시~3시 30분
 - 작 품 : <날말 공장 나라> 아네스 드 레스트라드 지음, 신윤경 옮김
 - 내 용 : ‘말’에 대한 풍부한 상상력이 가득 묻어나는 책공연
 - 문 의 : 440-6662~5

인천 홍보 라디오 청취 안내

“따끈따근한 인천 소식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 경인방송 FM 90.7MHz
플라이스튜디오 (매주 월~금 11:50)
- 인천교통방송 FM 100.5MHz
굿모닝 인천 (매주 월~금 09:50)
- 경기방송 KFM 99.9MHz
인천의 발견 (매주 월~토 08:50)

건강약속 강화약속축제

강화약속특구 아르미애월드와 지역특산물 강화약쑥을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하는 지역농업축제 '제3회 건강약속 강화약쑥축제'가 강화군농업기술센터 아르미애월드에서 열린다.
기 간 : 6월 4일(토)~6일(월) 3일간
장 소 : 강화군농업기술센터 내 아르미애월드
문 의 : 930-4130, armiae.com



‘우리 풀꽃이야기’들려줍니다

- 부평기적의도서관은 매달 마지막주 목요일에 ‘책’을 만난다. 친구생각+내생각’을 연다. 가족과 책을 사랑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 이 달의 책 : 〈우리 풀꽃 이야기〉
 - 일 시 : 6월 30일(목) 오후 6시
 - 장 소 : 부평기적의도서관 공연장 어울림
 - 참가 대상 및 인원 : 남녀노소 누구나(선착순 150명)
 - 참가비 : 무료
 - 내 용
 - 오프닝 공연
 - 우리 풀꽃 생태 세밀화 전시
 - 김영철 작가가 들려주는 우리 풀꽃 이야기
 - 이승원 작가와 함께하는 손수건에 우리 풀꽃 그리기
 - 작가 사인회
 - 문 의 : 505-0612~3, www.bpml.or.kr



생태프로그램에 참가하세요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운영하는 송도국제도시 생태학습관 및 자연학습관에서 하반기 생태체험학습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 수업요일 :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 시 간 : (평일) 오전반 10:00~11:30, 오후반 15:00~16:30
(토요일) 오전반 10:30~11:30, 오후반 14:00~15:00
 - 장 소 : 새아침공원 내 생태교육관(1층 강의실 및 2층 체험학습실)
솔찬공원 내 자연학습관(1층 강의실 및 생태관찰데크)
 - 인 원 : 1일 60명 내외
 - 예약시간 및 방법
접수시간 : 월~토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접수방법 : 경제청 홈페이지에서 예약현황 확인 후 전화예약(453-7975)

○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1주	2주	3주	4주	1일정원	대 상
7월	곤충나라이야기	○	○			60	6~12세
	자연물로 손수건 물들이기			○	○	60	6~12세
	입화카드 만들기	○	○	○	○	20	가족단위
8월	자연물로 손수건 물들이기	○	○			60	6~12세
	바다풍경이야기			○	○	60	6~12세
	야생동물 발자국 만들기	○	○	○	○	20	가족단위
9월	자연물로 손수건 물들이기	○	○			60	6~12세
	나뭇잎이야기/현미경관찰하기			○	○	60	6~12세
	야생동물 발자국 만들기	○	○	○	○	20	가족단위
10월	열매이야기(팔찌만들기)			○	○	60	6~12세
	술방울 공작 활동	○	○			40	6~12세
	송도국제도시 조류탐방	○	○	○	○	60	6~12세
11월	새 이야기(새 모빌만들기)	○	○	○	○	20	가족단위
	열매이야기(팔찌만들기)	○	○			60	6~12세
	송도국제도시 조류탐방(철새)	○	○	○	○	60	6~12세
	단풍이야기	○	○	○	○	60	6~12세
	새 이야기(새 모빌만들기)	○	○	○	○	20	가족단위

QR코드 만들기과 스마트폰 사용법 1일특강

-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QR코드 만들기과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정보매체를 손쉽게 검색하고 활용방법을 배울 수 있는 1일 특강을 마련했다.
- 신청기간 : 6월1일~17일(17일간) 선착순 마감
 - 신청방법 : 근로자 문화센터 1층 사무실 및 인터넷
 - 문의 : 578-6123, 578-5121

경력단절 여성 도와드려요

- 인천시는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지원을 전담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지역별로 설치하여 경력단절, 실직 등으로 인한 구직 희망 여성의 일자리 지원 및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 신청센터 및 문의처

기 관 명	소재지 (홈 페이지)	연락처
인천여성복지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남구 주안동 946-1 (women-center, incheon.go.kr)	440-6526~9
인천여성문화회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부평구 갈산동 375-1 (www.iwcc.or.kr)	511-3161~3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남동구 만수동 889 (www.ywcaici.com)	469-1251~2
남구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남구 용현동 630-10 (www.namgucenter.or.kr)	881-6060~2
서구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서구 가정동 517 (www.sgwomen.or.kr)	577-6091~2

사이버교육에 참여하세요

-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에서는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사이버교육을 무료로 하고 있다. 주요 강좌로는 외국어, 정보화, 자격증, 교양 등 행정실무분야 강좌 200개를 운영하고 있다.
- **외국어분야** : 생활영어, 토익, 영문법, 중국어 · 일본어회화, HSK, JPT 등 /
 - **정보야분야** : OA, 인터넷활용, 포토샵, UCC 제작 등 /
 - **자격증분야**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정보처리 산업기사, 일반행정9급 등 /
 - **교양분야** : 맥을 짚는 금융지식, 사이버아시아여행, 수화교육 등 /
 - **행정실무** : 에너지버스, 행복한 CS달인을 만드는 고객만족 클리닉, 회계실무 등
 - 문의 : 440-7674

사랑해孝, 감사해孝, 건강하세孝

- 효(孝)실천 가족캠프는, 세대 간의 격차를 좁혀가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인 효를 실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가족구성원들이 모두 함께 같이 웃고, 서로를 존중 할 수 있는 시간 및 친목과 협동심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회다.
- 일 시 : 6월 18일 오후 5시~19일 오후 12시
 - 장 소 : 이안숲속
 - 이동방법 : 야영 집결지까지 가족개별 이동
 - 대 상 : 인천거주 1명 이상 청소년을 포함한 3인 이상 가족
 - 접수기간 : 6월 9일 20시까지
 - 접수방법 : yuk8786@naver.com, 선착순 접수
 - 문 의 : 429-1318, 437-1318

국민연금 수급자 생활수기 공모

-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국민연금을 받으며 느꼈던 연금제도의 장점, 실생활에서 느끼는 국민연금의 유용함 등 수급자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생활수기를 공모한다.
- 공모부문 :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 응모자격 : 국민연금 수급자 및 그 가족
 - 원고분량 : 200자 원고지 20매(A4 용지 4매) 내외
 - 접수기간 : 5월 9일(월)~ 6월 5일(일)
 - 응모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 당선자 발표 : 7월 1일(금)
공단 홈페이지 공고 및 당선자 개별 통지
 - 문의 : 02-2240-1038

서포터즈 문화교육 ‘아시아 45개국 문화 맛보기’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대회 참가국의 문화를 알고 싶다면? 우리 시 국제교류센터에서는 아시아경기대회 서포터즈를 대상



으로 아시아 45개국에 대한 문화와 역사를 배우는 프로그램인 ‘아시아맛보기 :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서포터즈 문화 교육’을 열고 있다. 이들은 해당국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정보 공유를 통해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때 민간 홍보대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제교류센터는 지난 5월 3일 박상남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를 초청해 중앙아시아 민족과 우리선조들이 교류했던 흔적을 조명했고, 5월 17일에는 김형준 한국외대 남아시아연구소 연구원으로부터 힌두교의 다양한 신과 신화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아시아 문화 맛보기 프로그램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서포터즈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고 참가신청은 인천국제교류센터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현재 2차 교육생을 모집 중이고, 순차적으로 3,4차 서포터즈도 모집할 계획이다. 문의 451-1711

☆ 6월 서포터즈 문화교육

일 정	주제 및 강사
7일(화)	동남아시아 그 신비의 과거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탐방 (박장식 부산외대 미얀마어과 교수)
14일(화)	방랑자들의 땅, 카자흐스탄으로의 여행 (손영훈 한국외대 중앙아시아어과 교수)
21일(화)	그림으로 읽는 남아시아의 유적과 역사 (이춘호 한국외대 남아시아연구소 책임연구원)
28일(화)	아랍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까 (이종화 명지대 아랍지역학과 교수)

인천을 알아가는 재미가 가득!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에 있는 조선 후기 철종(1831~1863)이 왕위에 오르기 전 19세까지 살던 '용흥궁'이다. 인천광역시유형문화재 제20호로 지정돼 있다. 강화경찰서 왼쪽 담 옆 길을 따라 70m 정도 서쪽으로 들어가면 오른 쪽에 있다.

다른 부분은 모두 다섯 곳입니다.



5월호 '다른 그림 찾기' 정답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정답자 가운데 열 분을 추첨해 알립니다.



민소라 남구 용현2동	김보람 부평구 삼산동
조아라 계양구 임학동	김진희 남동구 간석동
김규리 부평구 갈산2동	황용유 계양구 효성동
문민영 남동구 도림동	류삼선 동구 화수동
김광현 남구 낙성중로	강대남 중구 을목동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굿모닝인천>은 시민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잡지입니다. 애정어린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인천 다른 그림 찾기에 응모하세요. 인천을 주제로 다른 그림 찾기 문제를 만들어 주는 것도 환영합니다.(단, 정답은 우편으로만 받습니다.)
- 사진도 공모합니다. 주제는 자유입니다. 추억이 담긴 사진과 함께 간단한 사연을 적어 보내주세요.

다른 그림 찾기
어디가 다를까?



김치 찰작



27년 전 그날

다섯 살 난 아들과 엄마가 사랑이 담긴 뽀뽀를 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들은 32살의 아빠가 되었고 엄마는 7년 전 저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그때 그날이 그림습니다.
_ 박명선 서구 석남1동

호박아가씨

주말농장에서 첫 수확으로 호박을 따고 기분 좋아하는 우리 딸입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이 맘껏 자연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_ 임충성 남동구 서창동



돌판은 어디에?

춤추고 있는 것인가? 벌서고 있는 것인가? 아닙니다. 심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잃어버린 모세의 '야릇한' 모습입니다. 송도 센트럴파크 바이블엑스포의 흔적입니다.
_ 김민준 동구 송현동



장원

누가 더 빠를까?

비행기와 자전거 가운데 누가 더 빠를까요. 전시된 비행기는 달리는 자전거보다 결코 빠를 수 없습니다. 인하대학교 캠퍼스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비행기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_ 김법성 부평구 산곡동



미래의 선수들

얼마 전 TV를 보다가 인천공항에 스케이트장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공항철도 타고 역에서 내리면 바로 앞이더라고요. 앞으로 자주 가려고요.
_ 임현범 계양구 이화동

보내실 곳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변인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문의 ☎ 440-8305) 홈페이지(goodmorning.incheon.go.kr)와 시 트위터(twitter.com/smartincheon, 영문사이트), (koreantweeters.com/smartincheon, 한글사이트)로도 받습니다. 마감은 매월 20일까지입니다. 응모하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접수합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 장원과 퀴즈문제 작성은 각 3장)을 드립니다.

터미널 방담(放談)



글 박규홍
인천교통공사 CEO

인천 최초의 단지형 아파트인 AID아파트가 남구 도화동에 준공돼 5백여 가구가 입주를 시작한 1975년, 남구 용현동 614 경인고속도로 진입로 입구에 인천시외버스종합터미널이 첫선을 보였다. 인천시가 시내 일원에 흩어져 있던 고속버스와 시내외 버스를 수용하기 위해 대지 5천여 평에 버스 2백34대를 공동 수용할 수 있는 터미널을 만든 것이다. 당시 인천의 상주인구는 76만7천여 명, 택시 4백여 대가 주정차할 수 있는 연계 교통망까지 들어서 용현동은 하루아침에 인천 최고의 교통 요충지로 떠올랐다.

우마차가 물류운송수단으로 여전히 다니던 상황에서 현대식 건물에 편안함을 갖춘 터미널 대합실은 지금과 비교하면 공항대합실의 분위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자식을 찾아 온 노부모와 휴가 나온 장병, 여정을 즐기는 여행객이 북적이던 곳. 만나는 기쁨과 헤어지는 서운함, 기다리는 설렘 그리고 삶의 여유까지 사람냄새 물씬 풍기던 곳, 바로 용현터미널이었다.

인천에 시외버스터미널의 역사가 시작된 지 46년, 나는 지난 97년 새롭게 단장한 관교동 인천종합터미널 대합실에 서 있다. 기다림에 지친 승객이 누어있던 기다란 나무의자가 인체공학을 감안한 안락의자로 변하고, 수기로 작성하던 버스시간 안내판은 전자게시대로 바뀌었다. 터미널음식점과 다방 자리에는 신세대가 즐겨 찾는 패스트푸드점이 들어서고, 과거 용현터미널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무인발매기가 곳곳에 설치돼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가용이 늘어나면서 버스터미널이 외면 받고 탑승객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자가용이 없거나 운전이 어려운 촌로와 중년의 아주머니가 터미널의 명분을 겨우 이어갈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큰 오산이었다. 고속도로가 확대되면서 운행구간이 늘어나고 전국 3대 도시 인천의 위상에 걸맞게 인천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 시간이면 수도권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3,40대 회사원들이 길게 줄을 서고, 휴가 나온 군장병과 지방에서 오신 어르신, 여행을 떠나는 가족과 연인으로 인천종합터미널은 언제나 북적인다.

전국 팔도의 방언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핸드폰을 든 신구세대가 한데 어울려 인천을 만나고 인천과 헤어지는 곳. 인천종합터미널은 신구세대가 공존하는 문화콘텐츠의 장으로 성장했다. 이번 주말엔 사람냄새 물씬 나는 인천터미널에서 따사로운 봄 정취를 따라 여유롭게 여행을 떠나볼까, 비단나만 생각하는 작은 바람은 아닐 것이다.



청춘, 조국 위해 산화하다

책 보파리를 잠시 내려놓았다. 행주치마를 조용히 벗었다. 현해탄을 주저 없이 건너왔다. 그리고 포화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들은 다시 바다를 건너지 못했고 다시 연필을 쥐지 못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몸은 쓰러져도 낯은 나라를 놓지 않고 뜻은 겨레와 얽매이어 장하고 매운 정신 황해 마르도록 우리 가슴에 흐르리라.’

글·사진 유동현 본지편집장